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六反田豊/田代和生・吉田光男・伊藤幸司・橋本雄・米谷均・北島万次

- | | |
|-------------------------|-------------------------|
| 一. 머리글 - 전쟁의 호칭에 대해 | 2. 의병 |
| 二. 전쟁의 원인, 목적, 동기 | 3. 被擄人 |
|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연구사 | 六. 앞으로의 연구 과제 |
| 2. 1950년대~70년대의 연구사 | 1. 조선 측, 명 측의 병량 공급 시스템 |
| 3. 1980년대~2000년대의 연구사 | 규명 |
| 三. 전쟁의 경과와 실태 | 2. 被擄人의 실태와 송환 시스템 해명 |
| 1. 전쟁의 경과 | 3. 왜성 연구 |
| 2. 전쟁을 뒷받침한 일본의 상황과 세력들 | 4. 전쟁에 의한 조선사회의 변화 |
| 四. 戰間期 강화 협상 | 5. 豊臣정권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연구 |
| 五. 항왜, 의병, 피로인 | 6. 동아시아 국제 질서, 특히 「책봉체 |
| 1. 降倭 | 재」에 관한 재검토 |
- 【文祿・慶長の 役 文獻目録】

一. 머리글 - 전쟁의 호칭에 대해

豊臣정권의 조선 침략은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당시 「朝鮮陣」, 「高麗陣」 등으로 불렸으나 그 후 幕末, 明治 초기부터 「征韓」, 「조선정벌」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 조선인을 동포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정벌」이란 표현은 지양하고 이를 대신하여 제1차 출병(1592-93년)을 「文祿의 役」, 제2차 출병(1597-98년)을 「慶長の 役」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文祿, 慶長の 役」이라는 호칭이 정착 되었다[石原道博1950, 1951, 1964]. 최근에는 北島万次가 「조선침략」이란 호칭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北島万次1990]. 한편 한국 측에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중국 측에서는 「萬曆朝鮮役」, 「萬曆日本役」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二. 전쟁의 원인, 목적, 동기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연구사

豊臣정권이 왜 조선 침략을 감행했는지와 관련된 원인, 목적, 동기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예도 시대 때부터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北島万次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堀正意, 林羅山 등에 의한 ‘愛兒 鶴松의 요절에 따른 울분 해소’라는 설과 貝原益軒, 賴山陽 등의 ‘有力諸大名의 전력을 꺾음과 아울러 그들의 공명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외 침략을 기도했다’는 설이다[北島万次1990]. 이 단계에서는 전쟁의 세세한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분히 秀吉 개인의 의향에서 나온 것이라는 논의로 집약되었던 듯하다.

이러던 것이 明治期 이후 일본의 근대 국가 형성과 더불어 대 아시아 침략의 선례로서 이 전쟁을 다루게 된 것이다. 그러한 풍조 가운데 「勘合貿易 復興說」이란 학설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秀吉가 日明勘合貿易의 부활을 위해 조선에게 그 알선을 의뢰했으나 그에 응해주지 않자 출병 했다’는 것이다[辻善之助1917, 1930][田中義成1925]. 이것이 이른바 「조선 정벌 사관」으로 이어져 가는 바탕을 만든다.

한편으로는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이 학설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곧바로 제기된다. 조선사, 만주사 연구의 기초를 쌓고 임진왜란의 전체상을 처음으로 그린 池内宏은 이辻, 田中 등의 勘合貿易 復活說을 비판하고, 秀吉의 공명심이야말로 조선 침략에 이르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池内宏1914a, 1936a]. 특히[池内宏1914a]는 秀吉의 대 조선 인식과 조선과의 중개역에 임명된 對馬島의 宗氏が 보여준 행동의 불일치를 지적한다. 예를 들어 秀吉는 薩摩의 島津氏が 琉球를 「통제하고」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宗氏が 조선을 통제했었던 것으로 오해하고 조선측에 入朝를 요구하는데 이를 宗氏が 1590년의 통신사 방일로 바꿔치기 해 놓는다. 또한 秀吉는 자신에게 禮를 청하지 않는 明을 「정벌」(정복)하기 위해, 조선에 「征明嚮導」(明國征伐의 길 안내역)을 명하지만 다시금 宗氏が 이것을 「假途入明」(明國入國을 위한 길 안내역)이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협상한 점을 처음으로 밝힌다.

이 연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徳富蘇峰1921~22]도 辻, 田中를 비판하고 秀吉의 조선침략 동기는 정복욕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田保橋潔1933][中村榮孝1935, 1969a]도 勘合貿易 復活說을 비판하고 秀吉의 영토확장지향과 宗氏의 기반적인

공작에 주목 한다.

이상과 같은 池内の「功名說」, 徳富의「征服說」, 田保橋, 中村의「영토 확장설」등의 학설 등은 모두 秀吉의 관심은 무역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豊臣정권의 영토 확장책이었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 특히 田保橋, 中村 등은「勘合復活要求란 明 征服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단계에서 강화 조건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대륙 정복 구상이야말로 주안점이었다」고 주장하며 종전의 설을 명쾌하게 비판한다. 이와 같이 근대 역사학에 있어서의 원인론은 勘合貿易 부흥설과 영토 확장설이라는 2항 대립의 틀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1950년대~70년대의 연구사

태평양 전쟁 종결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 이전의 황국사관에 대한 반성과 반동에서 오히려 민중을 중시하는 역사관이 대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전시중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금압이 해제되어 마르크스 사관을 공공연하게 내건 전후 역사학의 발흥 시대를 맞이 한다. 그 중에서도 1950년대 일본의 역사학계의「太閤檢地論爭」(秀吉시대에 전국 규모로 실시된 검지에 의한, 영주 경영, 토지 소유, 농촌 사회의 모습 등을 둘러싼 논쟁)의 영향을 받아 豊臣 정권론이라는 틀 내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어 간다.

전후 비로소 새로운 시점에서 원인, 목적, 동기를 모색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鈴木良一이다[鈴木良一1952]. 鈴木의 주장은 첫 번째로 중세의 土一揆 이후의 민중의 에너지를 얼버무려 버리려고 했던 일본 영주계급의 의도, 두 번째로 유럽 상업 자본(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서구 세력)에 대항하는 豪商의 의향, 양측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豊臣秀吉가 전제화를 강화하고「민족적 저항」의 문제로 바뀌버려 明의 책봉 체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로부터 연장된 것 중 하나가 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鈴木說 중 첫 번째의, 해외파병을 하려는「내부적 논리」는 岩澤愿彦의 실증연구로 이어진다[岩澤愿彦1962]. 岩澤의 주장에 따르면 豊臣정권에는 知行확장을 요구하는 움직임, 그로부터 파생되는 내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대륙 정복 의도가 秀吉의 關白 취임 직후부터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岩澤설은 [佐々木潤之介1965][朝尾直弘1964][藤木久志1974][高木昭作1985] 등에 의해 더욱 보강된다. 모두 임진왜란은 豊臣정권에 의한 전국 통일 사업의 일환이거나 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대외

침략 지향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해이다.

鈴木說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유럽 세력의 東漸을 맞이하게 된 동아시아 정세, 다시 말해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16~17세기의 일본을 둘러싼 대외 관계사 연구에 의해 실증 연구가 축적되어 간다. 앞서 기술한 池內宏, 中村榮孝에 의한 연구 이외에 특히 1960년대 들어 [田中健夫1961, 1966, 1975][佐々木潤之介1965][朝尾直弘1969][三鬼清一朗1966, 1968][山口啓二1974] 등의 연구가 배출된다. 이들 학설을 종합하면 ① 明의 책봉 체제를 동아시아 내부에서 깬 후기 왜구의 움직임, 포르투갈의 진출(荒野泰典의 표현을 빌리자면 「倭寇의 상황」[荒野泰典1987]) 등에 의해 明의 책봉 체제가 이완되었다. ②일본에 있어서는 明의 책봉하에 있던 중세 국가가 붕괴되며 전국 동란을 통일하고 그 중세국가를 지양한 豊臣정권이 明제국으로부터의 자립을 지향하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정복을 노린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豊臣期를 「국제적 국가주권의 확립」이라고 평가하는 설[佐々木潤之介1970], 혹은 「프로토 국민국가의 성립」으로 보는 설[勝俣鎮夫1996]로 이어진다.

3. 1980년대~2000년대의 연구사

1980년대, 豊臣정권론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기한 것이 [藤木久志1985]이다. 藤木는 豊臣정권에 의한 국내 모순 해소의 과정을 「전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豊臣정권의 전국 통일 기조를 군사적 정복뿐만 아니라 惣無事令(大名간의 사적 투쟁 금지령), 刀狩令, 해적 정지령 등 잇따라 발령된 이른바 「豊臣 평화령」이라 총칭되는 ‘사투의 정지’ 혹은 ‘평화의 창출’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입각하여 藤木는 예전의 「勘合貿易復活」설과 「영토확장」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한다. 다시 말해 豊臣정권은 明國에 대해서는 勘合 復活을 기조로 하고 朝鮮國에 대해서는 惣無事令의 적용(지배 영역으로 편입)을 정책 기조로 삼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정벌’(征討)은 일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행동의 발현이며 이 점은 勘合貿易復活 운운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室町時代 中後期 이후 日明관계 원활화를 위해 室町幕府와 京都 五山(京都 임제종의 5大寺인 天龍寺, 相國寺, 建仁寺, 東福寺, 萬壽寺의 총칭)은 日朝관계란 우회로를 이용해 온 사실이 존재한다(→「조선 통신사(중세편)」연구사 참조). 다시 말해 藤木설과 같이 日明, 日朝 양 관계를 완전히 구분하여, 勘合復活문제(日明관계)를 조선 침략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로 미루어 볼때 약간 무

리가 있는 듯 하다. 또한 藤木설에서는 「豊臣의 평화」라는 ‘내부적인 논리’로밖에 전쟁의 동기, 목적,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여기에서 ‘외부적인 조건’ — 동아시아 지역사의 전체적 전개 — 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진왜란으로 귀결되었는지와 같은 문제제기에 도전한 것이 米谷均의 일련의 연구이다. 우선 米谷는 田代和生와 더불어 16세기 단계의 對馬에 의한 僞使파견체제를 구조적으로 밝히고, 전국시대에서 織豊정권의 통일 과정에 관한 정보가 조선을 향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던 것을 해명했다[田代和生, 米谷均1995][米谷均1997] (→「僞使」연구사를 참조). 다시 말해 ①조선 왕조측이 豊臣秀吉의 존재를 침략 직전까지 알지 못 했던 점, ② 그로 인해 설마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해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 왕조가 쉽게 일본군측의 침입을 당하게 된 객관적 배경이 밝혀지기에 이른다[村井章介1999].

다음으로 米谷는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倭寇의 상황」이 어떻게 전쟁으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그를 위해 당시의 環지나해 지역에서 암약하던 조선인 해적 沙火同이라는 자의 縛送 一件(小西行長 등의 지시에 따라 실행되었다)에 주목하고 이러한 豊臣정권의 해적 정지령(初令은 1587년, [藤田達生 2001] 참조)의 실현이 있는 후 비로소 朝鮮王朝(宣祖朝)측이 秀吉가 내외의 평화를 장악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머지 않아 전쟁으로 직결될 1590년 조선 통신사의 일본 파견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米谷2002b].

이상과 같은 藤木, 米谷 등의 연구 성과에 의해 임진왜란의 원인, 목적, 동기는 상당히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豊臣秀吉가 언제 대륙 정복 의지를 갖게 되었나 하는 문제는 [岡田正之1905]가 1586년으로 본데 비해, [岩澤愿彦1962]가「伊予小松一柳文書」에 근거하여 1585년설을 제창하여 지금까지 통설이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堀新에 의해 1582년 이미 織田信長가 「唐入」(大陸征服)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루이스 프로이스의 「예수회총장 앞으로 보낸 日本年報 추신」에 의해 재확인되어, 秀吉는 이를 계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판명되었다[堀新 2002].

三. 전쟁의 경과와 실태

1. 전쟁의 경과

전쟁의 경과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은 [木下眞弘1893]이다. 木下는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1593년에 발생한 평양에서의 싸움 직전까지의 일을 문헌 자료를 구사하며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어 木下の 후계자인 松本愛重가 청일전쟁 발발 직후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전의를 고양하려 했던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집을 간행하여 堀正憲의 《조선정벌기》, 吉野甚五左衛門(松浦鎮信의 가신)의 《吉野日記》, 僧天荊(묘심사파의 선승)의 《西征日記》 등을 소개하였다[松本愛重1894]. 단지 이 단계의 연구에서는 사료라고 하더라도 기록류의 편찬 사료가 중심이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 오자 黑板勝美는 高野山에 島津氏が 세운 공양비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黑板勝美1905]. 그것은 단순히 전라도 남원, 경상도 사천에서 島津軍이 전승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사한 島津家 가신과 대전 상대인 조선, 명의 병사 등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島津家에는 편찬 기록인 《정한록》 등 많은 ‘軍記物’이 존재한다. 그러나 黑板의 연구는 전승 과시를 강조하는 후세의 편찬서보다도 공양비라는 현존 자료에 대해 주목하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그를 통해 전란기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

이 黑板의 연구와 같은 시기에 사학회가 몽고침입과 임진왜란에 관한 ‘偉績’을 기리기 위해 논문집을 간행했고 [사학회1905], 그 내용 중에 전쟁의 실태를 알아보려는 개별 실증 논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岡田正之1905]는 개전 직전의 군역 할당 계획, 본영 名護屋城의 축성, 諸大名 도해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밝히고 일본, 조선, 명의 무기 실태 등을 비교 하였다. [三浦周行1905]는 조선 출병군에 대한 秀吉의 군율을 다루었다. [辻善之助1905]는 安國寺 惠瓊가 조선에서 安國寺로 보낸 서장을 소개하고 조선 침략에 있어서의 선승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①惠瓊가 조선인에게 ‘이로하(いろは)’를 가르친 것은 국어(일본어)의 세력 신장을 의미하고 豊臣軍이 동화 정책을 견비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②惠瓊 등 종군승은 조선 국내에서 서적 약탈에 부심했을 뿐만 아니라 ③침략계획을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西笑承兌 및 玄圃靈三, 惟杏永哲 등 五山선승의 고승을 비서적 참모로서 막하에 두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藤田明1905]는 秀吉가 소지하고 있던 일본, 조선, 중국 등 삼국을 그린 부채

면에 대해 분석하고, 경상도를 하얀 색, 전라도를 붉은 색, 경기도와 충청도를 푸른 색, 평안도와 강원도를 노란 색, 함경도를 검은 색, 황해도를 무색으로 칠했던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는 조선 고지도 연구사의 시점에서 봐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芝葛盛1905]는 鍋島直茂가 함경남도에서 조선 인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들이고자 작성한 「조선국 조세첩」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들은 모두 전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문서류를 사용하여 중요한 논점을 파 내려간 실증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또한 획기적인 실증 연구를 발표한 것은 池内宏이다. [池内宏1914a, 1936a]는 임진왜란 전체와 관련된 연구이며 전쟁의 동기에서 경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일본측 사료 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선측 사료를 이용한 점이다. [참모본부1924]는 이 池内の 업적을 받아 보다 상세하게 전쟁의 구체적 사실을 확정 지었다. 그날 그날의 전쟁 경과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양서에 따르는 바가 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이전 사관이 비판당하는 한편, 실증적인 부분에서는 한층 더 심화가 이루어진다. 앞서 기술한 鈴木良一の 연구는 전쟁 경과를 생각하는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연구이다. 鈴木는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있었어도 「침략과 저항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종전의 학설을 비판하고 조선 침략에 대한 조선 인민의 저항을 부각시켰다[鈴木良一1952]. 이 연구가 이후의 일본에서의 조선사 연구에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후술「의병」항 참조).

일찍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조선사》 편찬에 관여 했던 中村榮孝는 1960년대에 연구를 집대성하여, 일본, 조선, 중국 사료를 널리 찾아서 얻어내는 실증적 검증을 비약적으로 높인다[中村榮孝1969a]. 中村의 연구는 조선왕조의 외교문서 사료집인 《事大文軌》 및 鄭希得(일본군 포로가 된 조선인 주자학자)의 《月峯海上錄》, 유성룡(개 전시 조선 왕조의 중심적 인물)의 《懲毖錄》 등 지금까지 이상으로 조선측 사료를 적극적으로 소개,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나 일본군으로 참전했으면서도 조선측에 투항한 왜장(일본인 무장) 金忠善(일본명 「沙也可」)의 존재를 처음으로 실증하고, 그의 전기 《慕夏堂文集》를 소개, 해설한 것은 특필할 만 하다(→후술부분의「降倭」항을 참조).

전쟁의 경과에 대한 연구는 北島万次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北島는 종군 무장인 田尻鑑種の 《高麗日記》를 발견하고 이 사료를 통해 중간 계급의 시점에서 본 전선의 모습을 밝힌다[北島万次1973, 1982]. 또한 北島는 임진왜란에 관한 선행연구를 섭렵함과 아울러 《朝鮮王朝實錄》등의 조선측 사료와 《兩朝平攘錄》등의 명측 사료, 또한 새로이 발견된 일본측 사료 - 특히 일기류, 기록류 - 를 균형이 있게 조합함으

로써, 전쟁의 실태를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리는데 성공한다[北島万次1990, 1995, 2002a, 2002b]. 또한 조선측의 기본 사료이기도 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처음으로 일본어로 역주하는 등[北島万次2001], 이 분야의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 밖에도 [村井章介2000]는 薩摩 藩士를 중심으로 참전 병사들의 회고록을 조사하여 그들 기억 속의 임진왜란을 재현했다. 그리고 [米谷均1996]는 전쟁의 경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구문 사료, 특히 키리시탄 관계사료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루이스 프로이스의 《日本史》는 임진왜란에 관한 기술이 많아 일본측 사료에서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小西行長에 관한 귀중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키리시탄 사료를 활용한 연구로서는 [柳田利夫1982]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 조선에 걸쳐서 포교 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수회의 의향을 검토하고 또한 小西行長の 요청에 의해 조선으로 건너간 첫 선교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또한 프로이스의 관계 사료는 [松田毅一, 川崎桃太1974]에 정리되어 있는데 일본인 이름 추정 등 검토가 약간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전쟁의 경과를 따라가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倭城 문제이다. 倭城이란 참전한 諸大名이 한반도 남부 각지에 축성한 일본식 산성을 말한다. 왜성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전황 분석을 통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鈴木圓二1905]는 加藤清正, 淺野幸長の 울산 농성과 명군 격파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고, 또한 조선 각지에서 이루어진 전쟁에 대한 분석이 진전되는 가운데 왜성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도 배출되었다[참조본부1924][伴三千雄1925b][池内宏1936a][李燭錫1977].

그 후 織豊정권에 대한 연구가 고조됨에 따라 八卷孝夫가 대표 편찬한 왜성 연구[倭城址연구회1979, 1980] 간행에 의해 이 분야는 한층 더 관심을 모으게 된다. 그 중에서도 [李進熙1984]는 진주, 웅천, 울산, 순천 등에 현존하는 왜성터를 실제로 둘러보고 조선 측의 군사거점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였다. 이윽고 1990년대 후반 들어 戰國에서 織豊期에 걸친 성곽(이른바「織豊系 城郭」)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확실하게 건축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한국 남부에 산재하는 왜성은 豊臣期の 일본식 성곽이 그대로 ‘주입’된 것이라는 발상이다. 그 중에서도 최신 성곽 연구의 진전을 이끌어 낸 縄張圖 수법([千田嘉博2000] 참조)에 의해 왜성 경관의 개요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의 연장에서, 최근 들어 왜성의 종합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1997년부터 왜성에 관한 전문 잡지 《倭城 연구》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왜성은 문헌사, 고고학, 건축학 등 학제적인 시각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黒田慶一2002][高田徹2002]등에서 볼 수 있듯이 大阪의 성곽사 간담회

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에 의해 지금까지 거제도, 순천, 부산, 西生浦, 金海竹島, 남해, 安骨浦, 웅천 등의 왜성이 다루어 졌고 遺構와 유물 조사를 통해 당시 왜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왜성의 보존상태 및 장차 과제에 관하여 보고한 [服部英雄 1998]에 따르면 왜성을 둘러싼 환경은 최근 들어 이루어진 급격한 개발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연구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2. 전쟁을 뒷받침한 일본의 상황과 세력들

전쟁 행위를 뒷받침한 당시 일본 국내 정세와 세력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豊臣정권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豊臣정권의 군역 체계(大名 등에 부과된 군사 협력 의무 체제)를 실증적, 구체적으로 검토한 [三鬼清一郎1966]은 이 戰役을 모든 영주 계급을 포섭한 「통일적 군역 체계」의 완성에 의해 비로소 실현 가능해진 것으로 본다. 이 三鬼의 연구와 같은 시기에 中村實은 군역을 부과한 九州諸大名의 대응을 규명하고 그 실행원수가 豊臣정권의 요구치를 밀돌았다는 점, 과중한 군역 부담에 의한 재정 궁핍이 九州 諸大名의 전국 시장, 특히나 上方(京都, 大坂 주변 지역)자본 의존도를 높이게 한 점 등, 일본군의 전선 기지가 놓인 九州諸大名의 동향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것을 지적했다[中村實 1966].

그 후 森山恒雄는 병참(인원, 음료등의 보급 기관)으로의 공급 기반이 豊臣정권의 九州 藏入地(직할지)였던 점에 주목하고 그 검출을 통하여 九州가 「五畿内(近畿地方 중앙부)同前」체제(정치적 중심지역과 같은 강고한 지배 체제)로 편입되어 간 것으로 평가한다[森山恒雄1983]. 다시 말해 전쟁을 계기로 하여 九州가 일본 통일로 편입되고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또한 田中健夫는 특히 對馬島에 초점을 맞추고, 對馬의 宗氏が 종전부터 조선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쟁에 즈음하여 독자적인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을 밝히고[田中健夫1975], 개개의 大名 입장에서 이 전쟁을 보는 시점을 제시한다. 이에 앞서 田中는 博多를 거점으로 하는 豪商 島井宗室의 동향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조선출병 자체에 대해 반대한 島井의 입장에서 호상 세력이 반드시 이 전쟁과 직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田中健夫1961].

九州諸大名 중 對馬島 宗氏와는 별도로 大大名이었던 島津氏が 해 낸 역할도 중요하다. 北島万次는 島津영국내에서 실시된 太閤檢地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따라 조선출병 체제가 굳어졌다고 주장한다[北島万次1977b]. 그러나 이에 대해 山本博文는 島

津氏が 구체적으로 군대를 어떤 방법으로 동원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무렵의 島津氏の 권력은 아직까지 강대한 가신단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다는 점, 병농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北島설을 비판한다[山本博文1983].

九州에 비중을 두면서 보다 전국적인 규모로 또한 사회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이 전쟁의 배경을 해명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新城常三1943]는 일본 각지의 廻船業者가 병참지로 물자를 수송하여 거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에도시대에 들어와 초기 호상으로 활동하게 된 점을 지적한다. [池享1995]도 또한 전국적인 유통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급속히 성장한 것으로 상정한다. 나아가 [中野等1999]는 논의가 복잡다기 하지만 전쟁 수행과 관련된 병량미의 수송체계를 제도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최대의 공적이 있다. 대체로 조선 침략이라는 군사행동이 미증유의 재의 집중과 분배, 유통과 상업 발달을 가져다 준 점이 지적되었으며, 군사와 전쟁이 초래하는 경제 효과와 같은 보편적인 테마를 이끌어 낸다. 이 밖에 도적질과 유괴, 인신 매매 등 전장에서 사람들의 행위, 특히 이 시기의 사회적인 연명 처세술의 수준에 주목한 [藤木久志1995b]의 지적도 전쟁과 그것을 배후에서 뒷받침한 사회와의 관련을 살펴 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수군, 조선, 수운에 관한 연구는 海事史의인 시각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부상한다. 앞서 기술한 [참도본부1924]는 그것의 이른 시기의 사례인데, [渡辺世祐1935]는 중세 해적(伊勢 水軍 등)의 발전 형태로서 豊臣期の 수군과 조선사업에 대해 보았다. 또한 有馬成甫는 자신이 해군 대좌(大佐)라는 입장에서 제1차 출병 단계에서 豊臣정권의 해전연구가 불충분했다는 점,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제2차 출병시 安宅船의 조선을 포함하여 수군 전력의 연구를 위해 노력했었다고 설명한다[有馬成甫194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연구를 이어 받아 豊臣정권에 의한 수군 편성을 「바다에서의 兵農分離의 체제적 실현」으로 규정한[三鬼清一朗1968]가 발표되기에 이른다.

軍事史,兵器史의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전한다. 다시 말해 吉岡新一와 宇田川武久에 의한 일본, 조선, 명 삼국간의 火器 비교 연구이다. 吉岡는 조선, 명 군은 대포와 함선이 뛰어났다고 지적한다[吉岡新一1983]. 특히 조선군이 군선에 탑재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의 중화기가 위력을 발휘하여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혔고, 또한 조선을 구원한 명군의 불랑기, 대장군포, 위원포 등을 일본군은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宇田川는 조선이 명의 兵器, 武技를 습득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으나 그로부터 머지 않아 日本軍降倭(투항병)등으로부터 철폐 제법 등을 배워 이를 자국의 상용 무기로 만들어 나갔다고 한다[宇田川武久1988]. 일본의 철폐는 「鳥銃」이라 불리웠고, 정밀도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그 후 동북 아시아에

서 동남 아시아에 이르는 무기 교류의 역사를 조사한 宇田川の 연구는 [宇田川武久 1993]에 집대성된다.

그런데 앞서 기술한[辻善之助1905]에서 볼 수 있듯이 豊臣정권의 전략적 두뇌로서 활동한 京都五山の 高僧과 전선에서 각 大名家의 宗軍승이 맡아 낸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승려들은 주로 조선과 명과 교환하는 외교문서 작성에 관여했다. 그 중에서도 毛利氏의 외교승이며 豊臣정권을 뒷받침하며 활약한 安國寺 惠瓊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 惠瓊에 대해서는 전기를 정리한[河合正治1959]가 있다. 그 밖에 [八代國治1905]는 鍋島 直茂의 宗軍승인 是琢가 포로가 된 조선 왕자를 위로하기 위해 시문 증답을 하였다고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宗軍승에게도 시문 재능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하에서의 승려 활동은 근년 들어 그 연구가 더욱 충실해 지고 있다. [北島万次 1989]는 중세 이후의 전통을 잇는 외교승으로서의 五山僧의 역할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또한 [米谷均1998]은 이전부터 주목받던 조선으로의 渡海僧(후의 宗軍승)天荊의 일기 세권(《右武衛殿之使朝鮮渡海之雜藁》, 《朝鮮往還日記》, 《西征日記》)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天荊이 對馬 宗氏의 渡海僧이었던 시대부터 宗軍승으로 활동하기까지의 모습을 밝혔으며 국면 전개에 따라 일기 내용 중 조선을 모멸하는 듯한 표현이 눈에 띄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단 그 무렵 博多에서 對馬 부근의 玄海灘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은 臨濟宗幻住派의 선승들이 중심이었으며, 이 幻住派 승려가 각지에 형성한 법계(동일 종파 계통)조직이란 관점에서 宗軍승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바라본 것이 [伊藤幸司2002][橋本雄1999]이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僞使」의 횡행은 다름 아닌 이 幻住派 승려들의 활동과 부합되었으며 그들의 실태 파악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僞使」연구사를 참조).

四. 戰間期 강화 협상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정유재란이 터지기까지의 戰間期(1593~96년)에 일본과 명 사이에서 강화 협상이 이루어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한 가장 빠른 연구는 [三上參次1905]로서, 1593년 肥前 名護屋城에서 秀吉가 제시한 화의조건 7개조를 제시했다. 이후 강화 협상기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그 논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으로 그 화의 조건 내용을 싣는다.

- ① 명조 황녀를 천황가와 혼인 시킬 것.
- ② 勘合을 부활하고 관선, 상선을 왕래 시킬 것.
- ③ 명, 일본의 대관에 의한 군사적 화평과 통호 서약을 교환할 것
- ④ 조선 남부 4도를 일본에게 할양할 것.
- ⑤ 인질로서 조선왕자와 대신 1~2명을 도해 방일 시킬 것.
- ⑥ 포로가 된 조선국 왕자 2명을 반환할 것.
- ⑦ 조선왕조의 권신은 誓詞를 제출할 것.

여기에 있는 조건②와 관련하여 [辻善之助1917][田中義成1925]가 秀吉의 조선 침략의 목적, 동기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미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해 [田保橋潔1933]는 오히려 조건④에 주목함으로써 秀吉가 당초 품고 있던 대륙 정복 구상, 다시 말해 일본, 조선, 명 3국의 國制 계획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양보하여 이러한 내용의 화의 조건이 된 것이라 이해한다. 다시 말해 秀吉의 의도가 이 화의 조건에 의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으로, 이 설은 [中村榮孝1969a]에도 계승되었다.

근년의 연구 동향으로서는 조건②에 있는「勘合」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일찍이 [中村榮孝1966]는 「勘合」을 명이 주는 符驗(통행증)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비해 [藤木久志1985]와 [北島万次1999]는 「勘合」=명과의 무역 상태의 부활로 보았으며, 구체적인 도항증으로 「秀吉의 渡海 朱印狀」을 생각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金文子1994]는 화의 협상시의 일본측 사료(《江雲隨筆》)에 주목하고, 「金印勘合으로 照驗을 해야 할 일」이란 기사에서 中村와 마찬가지로 「勘合」=符驗(통행증)으로 해석하고 秀吉가 室町시대의 이른바 日明勘合貿易의 부활을 요구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단 藤木, 北島說에서 구체화된 「秀吉의 朱印狀」은 지금까지 그 실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金文子설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勘合」이라는 말을 원래 日明勘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서 문제는 아직까지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런데 戰間期の 강화 협상은, 일본과 명 모두 내부적 정치 분열이 격렬하였고 이와 더불어 협상틀 밖으로 내쫓긴 조선 왕조의 필사적인 움직임도 더해진 점, 또한 「僞使」「僞書」가 3국간에 오가는 등 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三上參次1905]에 따르면 화의 조건을 秀吉는 명국의 사절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이 사절은 명의 宋應昌(兵部右侍郎文官)이 막하의 책사(첩보기관)謝用梓 등을 「明使節」로 사칭하게 해서 보낸 일종의 「僞使」라고 지적된다([中村榮孝1969a][北島万次1995]). 또한 조선 측을 무시하고 진행된 沈惟敬(명의 무장)과 小西行長の 루트에 대항하여 惟政(松雲大師, 朝鮮의 義僧兵)이 加藤清正와 4차례에 걸쳐 조정을

했었던 사실이 [貫井正之2002a][北島万次2002c][金榮作2002] 등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沈惟敬과 惟政에 의한 강화협상을 비교한 [沈尙勝2002]에 따르면 전란기에는 명의 대일본 회유책에 대해 저항하는 조선의 배격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것이 전란후가 되면 반대로 명의 대일 경계자세에 대한 조선의 친화적 태도와 같은 대비 구조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강화 협상은 이듬해 1596년에 깨져 정유재란이 발생한다. 이 강화 협상이 깨진 이유는 지금까지 ‘명이 秀吉의 요구(화의 7개조)를 무시하고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자 한 것에 대한 秀吉의 격노’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에 대해 최근 山室恭子, 佐島顯子, 金文子 등이 이론을 제출하였다. 우선 山室은 당시 大坂城에서 발생한 秀吉과 冊封使와의 和議 決裂의 모습을 전하는 사료가 반세기가 지난 에도시대의 유학자와 병법가의 손으로 기록되었다고 지적하고 사실이 날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山室恭子1992]. 또한 단편적인 동시대 사료를 조합하여 秀吉가 책봉사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山室에 따르면 和議가 결렬된 원인은 ①명장 沈惟敬이 秀吉에게 보내는 返書에서 조선에 있는 일본군의 완전철퇴를 요구한 것, ②조선 왕자가 조선통신사와 동행 방일하지 않은 것 등 두가지 이유에 의한 것이며 秀吉의 조선 지배가 완전히 부정된 것에 대한 분노를 들고 있다. 이 관점은 [佐島顯子1993, 1994]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

한편 [金文子1994]는 대략적으로 山室, 佐島의 결론을 지지하면서도, 明使가 金印, 官服과 더불어 지참한 「誥命(일본 국왕의 임명장)」, 「詔諭(일본 국왕의 임명장)」, 「勅諭(책봉 이유 등을 명기한 명황제의 명령서)」를 엄밀하게 구별하고 秀吉의 분노의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秀吉는「誥命」자체에 대해서는 기쁘게 받아 들였으나 「勅諭」의 내용을 읽고는 화를 내며 화의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를 통해 秀吉가 모르는 새 小西行長가 심복인 內藤如安을 보내 명황제에게 「降表文」(칙서발령을 희망하는 서류)을 상정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더구나 그 「降表文」은 조선에서 칠병할 것 등을 명조에 서약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단 內藤如安에 의한 「降表文」상정, 「誥命」과 「勅諭」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이미 [中村榮孝1966, 1969a, 1973]이 상세히 검토한 바가 있다. 복잡한 것으로는 처음에 명사가 지참한 ①誥命, ②招諭, ③勅諭는 사행 도중에서 정사(李宗城)가 도망한다는 불측한 사태로 인해 새로이 정사(전 부사인 楊方亭), 부사(沈惟敬) 명의의 ④誥命, ⑤勅諭가 추송되어 秀吉에게 전달되었다. 그 중에서 문면이 판명되는 것은 구 사자명으로 문장 중에 「平秀吉」명이 있는 초유(사본)과 칙유(宮內廳박물관에 현존), 그리고 사자명이 없고 문중에 「豊臣秀吉」명이 있는 고명(大阪역사박물관에 현존)이며, 전자는 舊

本②, ③, 후자는 ① 혹은 ④이라고 생각된다. 신본⑤ 칙유의 정확한 문면은 밝혀지지 않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고명」 「칙유」에서 秀吉의 분노를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大坂城에서 전달된 신본(④⑤)을 염두에 두고, 과연 구분과 같은 문장인지 서지학적인 면에서의 연구까지 포함한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명사가 秀吉에게 보낸 관복은 京都妙法院에 현존하여 이를 복식사, 염색사의 시점에서 논술한 것으로 [河上繁樹1988]가 있다.

또한 전간기는 아니지만 정유재란 말기에도 강화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전간기 강화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李啓煌1997]이 있다. 이 연구는 예전에 [丸龜金作1938]가 다룬 전쟁 말기 명의 외교문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①명정 내부와 전선 쌍방에 있어서의 주전파와 강화파의 대립구조를 밝히고 그를 통해 ②주전파를 지원하는 조선 왕조의 자세, ③小西行長 등에 의해 진행된 철병, 강화 협상의 이면에 명과 조선군에 의한 對馬 침략이라는 위기 회피 공작이 얹혀 있어, 이것이 근세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和好」 「通好」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또한[閔德基2002]는 전후 강화 협상이 명국의 간섭 없이 조선왕조의 전결사항으로 진행된 배경에 북동부 여진족장 누루하치의 위협 증대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對馬를 중개역으로 한 통교회복을 빨리 가져다 주었다고 고찰한다(→「조선 통신사(근세편)」연구사를 참조).

五. 항왜, 의병, 피로인

1. 降 倭

장기화되는 전쟁 중 전선을 이탈하여 조선군측에 투항하거나 전투 중 포로로 잡히는 일본인이 다수 존재하였다. 조선측 사료에 있어서는 전자를 降倭, 投降倭, 歸順倭라고 하였고 후자를 生擒倭, 被虜歸順倭 등으로 칭했는데[米谷均1996], 여기에서는 편의상 모두 「降倭」라 부르기로 한다.

降倭에 대해서는 加藤清正의 선봉이었던 「沙也可」(金忠善, 慕華堂이라고도 한다)가 잘 알려져 있다. 전기《慕華堂文集》에 따르면, 종군중 조선의 東土禮儀의 풍속을 보고, 중화 문물이 번성한 것을 경모하여 부하를 이끌고 조선 측에 투항하여 일본의 「조총」(火繩銃)을 전습시키는 등 대 일본군전(對日本軍戰)에서 활약했다고 한다. 그러

나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이 沙也可의 존재를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하는 학설이 활발해졌다. [幣原坦1904, 1924][內藤虎次1915]는 함께 沙也可의 사적을 가공의 위작이라고 단정하였고, 또한 [靑柳綱太郎1930]은 충군애국이념이 왕성한 加藤清正의 肥後藩에서 그와 같은 비국민이 나올 이유가 없다며 이는 가공의 존재라고 단정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과학적인 설은 곧이어 中村榮孝에 의해 명쾌하게 부정된다. 中村은 《조선왕조실록》기사에 근거하여 沙也可의 존재를 다시금 실증해 보였다[中村榮孝1933]. 항왜에 대한 中村의 연구는 이후 더욱 치밀해진다. 집대성된[中村榮孝1969b]는 전쟁 이후에도 조선군을 위하여 활약하는 沙也可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왕조로부터 관직을 하사받고 이름도 金忠善으로 바뀌 살아가는 생애를 현존하는 많은 사료의 소개와 더불어 해명한다. 또한 [中村榮孝1966]에는 1935년 김충선의 자손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 달성군에 가서 사료를 조사했을 때의 일족과의 기념 사진, 또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김충선의 자필서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물론 沙也可 이외에도 많은 항왜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 北島万次는 李舜臣《난중일기》[北島万次2001]안에서 다양했던 항왜의 모습을 지적한 바 있다[北島万次2002a]. 예를 들어 항왜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이순신이 항왜를 어떻게 편성하여 이용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고 항왜가 속출했던 피크가 전간기인 강화 협상기(1595~96년)이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일본군이 경상도 남해안에 왜성을 축성하고 장기 주둔하고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왜성 축성공사 작업도 어려워지고 병량 부족도 심화되어 많은 수의 倭卒(일본병)이 조선 측에 투항했다고 한다. 또한 이순신 회화에 모인 항왜는 결코 단결하여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각각 다양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조선 측의 1차 사료를 통하여 항왜의 세계가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 의 병

의병이란 조선 왕조의 정규 군인이 아니며, 주자학의 뜻을 받드는 군으로서 사대부가 중심이 되어 일반 농민도 참가했다.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의병의 존재를 다룬 것은 [池內宏1936a]이다. 池內는 일본과 조선 양측의 사료를 대조해 봄으로써 1592년에 발생한 함경도의 의병 쫓기에 대해 밝혔다. 다시 말해 우선 함경남도 함흥에서 鍋島直茂의 본진을 중심으로 의병이 습격을 가한 일, 또한 함경북도에서는 鄭文孚를 지도자로 하는 의병이 쫓기하여 일본군으로 귀순한 鞠世弼등이 지배하는 鏡城

을 탈취한 일 등을 논증하였다.

그 후의 의병연구는 조선사 연구, 특히 민중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심화되어 간다. 旗田巍는 「조선 사람이 걸어온 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병 싸움이 일본군의 침략을 파탄시켰다며 조선 민중의 에너지를 높이 평가한다[旗田巍1951]. 이 논의를 한층 발전시킨 것이 貫井正之이다. [貫井正之1963, 1965]는 일관되게 의병을 연구했고 그 성과를 [貫井正之1996]에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①일본군 침략을 계기로 조선 각지에서 조선왕조 정부에 대한 투쟁, 반란이 발생하여 혼란 상태에 빠졌다는 점, ②義兵을 통솔하는 장수들이 대개 양반층(사족계급)출신인데 비해 부하 병사의 대부분이 신분 해방의 요구를 갖는 양인 농민과 노비였다는 점, ③여기에 순수한 민족적 투쟁으로 승화되지 못한 의병운동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 중에서 ②에 대해서는 [崔永禧1960]도 같은 지적을 했다. 또 의병장 객재우를 다룬 개별 사례 연구로서 貫井의 연구이외에 [金潤坤1967]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貫井와 같은 관점에서 의병운동을 다룬 것이 [矢澤康祐1977a, 1977b]이다. 이 矢澤의 연구 중 貫井와 다른 논점을 찾아보자면 조선 민중의 고통이 일본군 침략과 명군에 대한 다양한 봉사에 따른 부담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가 부과하는 축성 등 토목 공사와 무기, 병량 운반 등의 노역, 공납 의무 이행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의병 연구는 승병 통솔자인 惟政(송운대사)의 동향에 초점을 맞춘 [仲尾宏, 曹永錄 2002]의 간행에 의해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 서론을 기술한 [高柄翊 2002]은 소설 속에 그려진 惟政의 초인적인 행동이야말로 전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민중 심리의 반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北島万次2002c]는 전란의 주변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惟政의 위상을 명확히 밝힌다. [曹國慶2002]는 惟政과 더불어 주전파로서 싸운 劉緹(明總兵)을 다루고 양자간 협동 태세가 존재했었다는 점을 밝히고 또한 [鄭柄朝2002]는 惟政의 생각을 불교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의병연구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被擄人

임진왜란에 의해 수만명의 조선인 捕虜 등(「被擄人」로 총칭)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이 被擄人에 관한 연구는 당초 전역 결과 반도, 대륙 문화가 어떻게 일본으로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논의되어 왔다. 우선 [平井鏗次郎1905]가 조선도공의 일본연

행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계기로 근세 일본의 도공업이 발달했다고 밝힌다. 이어 [徳富猪一郎1921~22]는 도기와 활판인쇄가 일본에 들어와,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적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최근 들어 薩摩苗代川の 도공들을 다룬 것이 [北島万次2002]이다. 그들은 주로 제2차 출병(정유재란)시 島津氏에 의해 강제 연행된 도공들로 苗代川에 집주지가 마련되고 부득이하게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北島는 苗代川の 조선식 도자기 기술과 그 생산구조를 밝히고 西日本에서 발전한 製陶技術, 生産構造와의 상이점을 밝혔다.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과 달리 内藤雋輔는 조선 민족내에 비참한 상흔을 남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관점에서 정치,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被擄人의 실태에 주목했다[内藤雋輔1976]. 内藤에 따르면 被擄人은 크게 나눠 주자학자, 농민, 직인(도공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중 이퇴계의 유파에 해당하는 姜沆(藤原惺窩와 교류가 있었으며 근세 유학의 기초를 쌓았다고 한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자학자의 경우에는 일반 被擄人と 구별되어 일본 학자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반면 농민과 도공 등의 被擄人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일 없이 오로지 육체 노동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같은 被擄人이라도 그들을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단 鶴園裕는 被擄人을 농업 노동력으로 활용했다는 견해에 대해 사료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론을 제기했다[鶴園裕19評姫91].

被擄人은 일본으로 연행된 후 동북 지방에서 沖繩, 심한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 팔려간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당수의 被擄人이 반세기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본국 조선으로 송환(刷還)된 것도 사실이다. 内藤雋輔의 계산에 따르면 근세 초기에 송환된 조선인 被擄人 수는 7500명 이상이다[内藤雋輔1976]. 그러나 최근 [米谷均1999b]는 이 内藤의 수치에 대해 동일 被擄人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상당수 중복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조선 양측의 기록을 재검토하면 대략 61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상정한다.

被擄人의 송환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선 통신사(근세 초기의 「回答使 兼 刷還使」)측에 의한 소집 움직임으로 밝힌 경우 [米谷均1999a]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일본 측 세력들, 그 중에서도 對馬 宗氏, 諸大名, 幕府 등의 대응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 [米谷均1999b] 등의 양면 연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시대와 함께 송환되는 被擄人수는 격감한다. 李元植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被擄人들이 일본 사회에서 정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사정 이외에 ‘본토로 돌아가도 전혀 이득이 없다’며 동료들에게 말하며 송환을 방해한 자(예를 들어 被擄人 李文長 등)가 존재했기 때문이라 한다[李元植1984]. 이와 관련해 米谷의 논문은 귀국후의 被擄人에 대한 조

선 왕조의 대응을 주목한다[米谷均1999a, 1999b]. 당초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면죄(일본측의 포로가 된「죄」를 용서하는 것), 免役(부역 면제), 免賤(천민 신분 해방), 復戶(충신, 효자, 열녀에 대한 면세)등의 특전 부여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부산 근처에 놔두고 가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귀국후의 被擄人 개개의 추적 조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被擄人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일본 내외로 퍼지고 개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해명되지 못 했다(→「조선 통신사(근세편)」연구사를 참조).

六. 앞으로의 연구 과제

이상과 같은 연구사 정리에 바탕하여 앞으로 기대되는 연구과제를 열거해 둔다.

1. 조선 측, 명 측의 병량 공급 시스템 규명

전쟁 수행시 병참, 병량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 측의 병량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藏入地와 수송체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는데 조선군과 명군의 병량 조달 지급 시스템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명군의 주둔, 파병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또한 당시의 쌀 가격과 시장 유통의 문제 등 조선 사회를 알아가는 단서로서도 이러한 병량 조달 시스템의 해명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2. 被擄人의 실태와 송환 시스템 해명

전쟁시에 일본으로 연행된 被擄人이 어떻게 본국으로 송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개별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투항 조선인」 「귀순 조선인」과 被擄人과의 관계, 被擄人 성격의 실태 자체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被擄人 송환제도와 더불어 실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왜성 연구

예전의 왜성터 연구회 활동과 최근의 연구 잡지 《왜성 연구》를 통한 착실한 작업에 의하여 왜성의 확인 자체는 상당히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왜성도 있어 모든 검증이 종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도시개발은 예상을 뛰어 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빠짐 없는 조사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고학적인 발굴도 포함하여 왜성 연구(현지 조사)를 조속히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4. 전쟁에 의한 조선사회의 변화

임진왜란에 의해 조선사회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전쟁이 사회에 끼친 영향과 전쟁 이전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의 변화 만큼 고찰되어 있지 않다. 豊臣정권의 조선 침략에 의한 상흔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불가결하다.

5. 豊臣정권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전간기 강화 협상에서의 화의 7개조에 근거하여 조선침략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 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방법은 전쟁후반기의 사실을 초기 상황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豊臣정권 내외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더구나 시기에 따라 사고가 변화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秀吉 개인은 물론이고 豊臣정권 내부의 「전략론」에 대해 세부에 걸쳐 검토하고 개진 목적, 동기를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6. 동아시아 국제 질서 , 특히 「책봉체제」에 관한 재검토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豊臣정권 이후의 국가를 ‘프로토 국민국가’, ‘주권국가’로 평가하여 종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자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학설이 최근 유력해 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독립을 지향하는’ 중근세 이행기의 일본 사회와 명조가 주도하는 「책봉 체제」가 어느 정도 저축, 모순되는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적어도 전간기 강화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책봉도 조공도 豊臣정권은 감수했으며 ‘冊封관계의 해소’가 다름 아닌 ‘자립’을 의미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대의 「책봉체제」 「책봉관계」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도 막연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의 국제 질서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나가야 한다.

文獻目録

1. 木下眞弘, 1893, 《豊太閤征外新史》, 青山堂
2. 北豊山人, 1894, 《文祿慶長朝鮮役》, 博聞社
3. 松本愛重, 1894, 《豊太閤征韓秘録》, 成歡社
4. 勝又 次郎, 1900, <明朝の方面より觀察したる文祿の役> 《史學界》2-4、5、6、8、11、12
5. 幣原坦, 1904, <沙也可> 《歴史地理》10-1
6. 田中義成, 1904, <豊太閤の外征に於ける起因に就て> 《史學雜誌》15-11
7. 岡田正之, 1905, <文祿役に於ける我戰鬪力>, [史學會1905收録]
8. 史學會編, 1905, 《弘安文祿征戰偉績》, 富山房
9. 黑板勝美, 1905, <高野山朝鮮陣の供養碑>, [史學會1905收録]
10. 芝葛盛, 1905, <文祿役に於ける占領地收税の一斑>, [史學會1905收録]
11. 鈴木圓二, 1905, <蔚山籠城情況>, [史學會1905收録]
12. 田中義成, 1905a, <豊太閤が外征の大目的を示したる文書>, [史學會1905收録]
13. 田中義成, 1905b, <豊太閤の外征に於ける原因に就て> 《史學雜誌》16-8
14. 辻善之助, 1905, <安國寺惠瓊の書簡の一節>, [史學會1905收録]
15. 平井鏗二郎, 1905, <文祿役の我が工芸に及ぼせる影響>, [史學會1905收録]
16. 藤田明, 1905, <豊太閤所持と伝へらるゝ扇面及び朝鮮役に用られたる地図>, [史學會1905收録]
17. 三浦周行, 1905, <豊太閤の軍律>, [史學會1905收録]
18. 三上參次, 1905, <文祿役における講和條件>, [史學會1905收録]
19. 八代國治, 1905, <文祿役における俘虜の待遇>, [史學會1905收録]
20. 山縣昌藏, 1905, <文祿役の虎狩>, [史學會1905收録]
21. 妻木忠太, 1906, <碧蹄館付近における戦役につきて> 《史學雜誌》17-8
22. 大川茂雄, 1908, <朝鮮梁青溪父子の伝> 《國學院雜誌》14-8
23. 松本愛重, 1908, <燃藜室記述の豊太閤に關する異説> 1・2, 《國學院雜誌》14-1、3
24. 大川茂雄, 1909, <征韓役晋州儒兵の忠烈> 上・下, 《國學院雜誌》15-10、11
25. 池内宏, 1910, <龍仁の戦> 《東洋時報》145
26. 田中義成, 1910, <倭寇と李成桂> 《歴史地理》朝鮮号
27. 池内宏, 1911, <カトカイと云う地名につきて> 《東洋學報》1-3
28. 青柳南冥, 1912, 《鮮人の記せる豊太閤征韓記》, 朝鮮研究會
29. 池内宏, 1912, <カライサンと云う地名につきて> 《東洋學報》2-1
30. 上村閑堂(觀光), 1913, <朝鮮僧松雲と日本僧玄蘇> 《禪宗》225、227

31. 池内宏, 1913a, <海汀倉の戦につきての考> 《史學雜誌》24-5
32. 池内宏, 1913b, <咸延虎の言に據れる懲毖録の記事を検覈して河合博士の示教に及ぶ> 《史學雜誌》24-8
33. 河合弘民, 1913a, <海汀倉の戦に關する懲毖録の誤謬> 《史學雜誌》24-7
34. 河合弘民, 1913b, <再び懲毖録の誤謬に就て池内學士に答ふ> 《史學雜誌》24-10
35. 池内宏, 1913~14, <文祿戰役開始以前に於ける秀吉の對外的態度を論じて此の戰役の發端に及ぶ> 《史學雜誌》24-7、9~12、25-1、2
36. 池内宏, 1914a, 《文祿慶長の役》正編第一, 南滿州鐵道(1987年吉川弘文館復刊)
37. 池内宏, 1914b, <京城の軍議に關する黒田家譜の記事錯簡と軍議の時日> 《史學雜誌》25-3
38. 池内宏, 1914c, <海汀倉の戦に關して再び河合博士に答ふ> 《史學雜誌》25-4
39. 池内宏, 1915a, <加藤清正のオランカイ攻伐> 《史學雜誌》26-3
40. 池内宏, 1915b, <永興における日本軍の徵稅> 《學生》6-10
41. 内藤虎次郎, 1915, 《慕華堂》, 朝鮮研究會
42. 辻善之助, 1917, 《海外交通史話》, 内外書籍
43. 池内宏, 1918, <明將祖承訓の敗走以後に於ける我が軍の態度> 《史學雜誌》29-7
44. 魚澄惣五郎, 1918, <文祿慶長の役が我が製陶業に及ぼせる影響> 《歴史と地理》1-6
45. 田中義成, 1918, <文祿役の發端に就て> 《朝鮮》
46. 栢原昌三, 1920, <文祿講和條約に就いて> 《史學雜誌》31-5
47. 伴三千雄, 1920~21, <南韓に於ける慶長・文祿の築城> 1~8, 《歴史地理》36-5、6、37-1、6、38-1
48. 徳富猪一郎, 1921~22, 《近世日本國民史 朝鮮役》上・中・下, 民友社
49. 伴三千雄, 1922a, <文祿慶長役數次の軍議> 1~4, 《歴史地理》40-1~4
50. 伴三千雄, 1922b, <文祿役に所謂<古都>の弁> 《歴史地理》40-6
51. 三浦周行, 1923, <朝鮮役に關する二三の考察> 上・下, 《芸文》14-5、6
52. 參謀本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偕行社
53. 幣原坦, 1924, 《朝鮮史話》, 富山房
54. 伴三千雄, 1924, <南韓沿岸の築城群—文祿慶長役史蹟の研究—> 《明治聖徳記念學會紀要》22
55. 田中義成, 1925, 《豊臣時代史》, 明治書院
56. 伴三千雄, 1925a, <朝鮮役に於ける兵器と戰法の変遷> 《歴史地理》増刊号
57. 伴三千雄, 1925b, <再び南韓に於ける文祿・慶長の築城に就いて> 《歴史地理》46-3
58. 青柳綱太郎(南冥), 1926, 《朝鮮史話と史蹟》, 朝鮮研究會
59. 名越那珂次郎, 1929a, <日本切支丹に殉教せる朝鮮の人々> 《朝鮮》165
60. 名越那珂次郎, 1929b, <碧蹄館役と立花宗茂> 《朝鮮》174

61. 青柳南冥(綱太郎), 1930, 《朝鮮史家の記せる豊太閤朝鮮役一著者の注釋と修正並批判―》
(文祿の卷)(慶長の卷), 京城新聞社
62. 辻善之助, 1930, 《増訂 海外交通史話》, 内外書籍
63. 都甲玄卿, 1930, <文祿役釜山城の明冊封使遁走事件に就て> 《朝鮮》184
64. 名越那珂次郎, 1930, <碧蹄館役と小早川隆景> 《朝鮮》184
65. 山口正之, 1930, <日本耶蘇會宣教師セスペデスの渡鮮―朝鮮基督教史研究(1)―> 《青丘
學叢》2
66. 子覺民, 1930, <日本の大陸侵略史> 《歴史教育》5-10
67. 名越那珂次郎, 1931a, <碧蹄館役と豊太閤の感狀> 《青丘學叢》3
68. 名越那珂次郎, 1931b, <幸州山城の戦と權慄> 《朝鮮》198
69. 山口正之, 1931, <耶蘇會宣教師の入鮮計畫―朝鮮基督教史研究(2)―> 《青丘學叢》3
70. 山口正之, 1932, <朝鮮役に於ける被虜人の行方―朝鮮被虜人賣買の一例―> 《青丘學叢》
8
71. 田保橋潔, 1933, <壬辰役雜考> 《青丘學叢》14
72. 中村榮孝, 1933, <慕華堂金忠善に關する史料に就いて> 《青丘學叢》12 [中村榮孝1969
收録]
73. 成田喜英, 1933, <倭寇と万曆の役>(1)・(2), 《歴史教育》7-11、12
74. 黒田省三, 1934a, <所謂服部伝右衛門朝鮮陣覺書に就いて> 《青丘學叢》17
75. 黒田省三, 1934b, <臨海・順和二君の生擒と其送還> 《青丘學叢》18
76. 近藤直, 1934, <朝鮮征伐> 《歴史科學》3-5
77. 藤井眞澄, 1934, <豊太閤と大アジア経綸> 《日本精神講座》8、新潮社
78. 大木透, 1935, <新資料に據る加藤清正の海外貿易に就いて> 《伝記》2-4
79. 中村榮孝, 1935, <文祿慶長の役> 《岩波講座 日本歴史》
80. 渡辺世祐, 1935, <朝鮮役と我が造船の發達> 《史學雜誌》46-5
81. 池内宏, 1936a, 《文祿慶長の役》別編第一, 東洋文庫
82. 池内宏, 1936b, <東萊の安樂書院と釜山東萊二城陷落図> 《青丘學叢》26
83. 池宮新, 1937, <池内宏著<文祿慶長の役>> 《史學》16-2
84. 中村榮孝, 1937a, <文祿・慶長の役を中心とした外交事情> 《歴史教育》12-8
85. 中村榮孝, 1937b, <文祿役にわが軍は朝鮮で何をしたか> 《朝鮮》271
86. 中村榮孝, 1938, <慶長役の意義> 《史學雜誌》49-7
87. 九龜金作, 1938, <朝鮮宣祖朝に於ける明丁応泰の誣奏事件> 1・2, 《歴史學研究》8-
9、10
88. 山口正之, 1938, <文祿役中朝鮮陣より發せし耶蘇會士セスペデスの書翰につきて> 《史學
雜誌》49-1
89. 中村榮孝, 1939, <文祿慶長の役>(大日本戰史3), 三教書院

60 韓日 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90. 野村晋域, 1939, <朝鮮の役と北九州に於ける都市の發達> 《社會經濟史學》9-3
91. 京口元吉, 1940, 《秀吉の朝鮮經略》, 白揚社
92. 古田良一, 1941, <秋田家文書による文祿・慶長初期北國海運の研究> 《社會經濟史學》11-3
93. 穗積文雄, 1941, <明史日本伝に見ゆる秀吉> 《支那》32-9
94. 有馬成甫, 1942, 《朝鮮役水軍史》, 空と海社
95. 丸龜金作, 1942, <文祿・慶長の役と南方人種の海鬼について> 《歴史學研究》103
96. 和田博, 1942, <支那側より見たる豊太閤封王の事情> 《東亞史論叢》生活社
97. 新城常三, 1943, 《戰國時代の交通》, 畝傍書房
98. 平岡武夫, 1944, <秀吉と明史> 《學芸》1-3
99. 京口元吉, 1946, <豊臣秀吉の朝鮮經略> 《新中國》5
100. 石原道博, 1950, <丁酉役後の日明交渉について> 《史學雜誌》59-5
101. 石原道博, 1951, <倭寇と壬辰の役> 《朝鮮學會會報》6
102. 旗田巍, 1951, 《朝鮮史》, 岩波書店
103. 池内宏, 1952, <文祿役における小早川隆景の全羅道經略> 《東洋學報》35-2
104. 池宮新, 1952, <豊臣秀吉の對外政策について> 《法學研究》25-11
105. 鈴木良一, 1952, <秀吉の《朝鮮征伐》> 《歴史學研究》155
106. 石原道博, 1953, <朝鮮側よりみた明末の日本乞師について> 《朝鮮學報》4
107. 中村榮孝, 1953, <朝鮮全州の史庫とその藏書—壬辰・丁酉の亂と典籍の保存—>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5
108. 丸茂武重, 1953, <文祿・慶長の役に於ける朝鮮人抑留に関する資料> 《國史學》61
109. 矢澤利彦, 1953, <リッチ(利馬竇)史料に見えた日本關係記事> 《史學雜誌》62-12
110. 奥野高廣, 1954, <文祿慶長の役と豊臣秀吉> 《日本歴史》79
111. 鈴木良一, 1954, 《豊臣秀吉》, 岩波書店
112. 矢澤利彦, 1954, <マテオ=リッチと文祿慶長の役> 《日本歴史》70
113. 河合正治, 1959, 《安國寺惠瓊》(人物叢書), 吉川弘文館
114. 崔永禧, 1960, <壬辰義兵の性格> 《史學研究》8
115. 中村榮孝, 1959, <文祿・慶長の役に關する覺書> 《名古屋大學文學部10周年記念論集》
116. 中村榮孝, 1960, <朝鮮役の出征將士と朝鮮女性> 《日本歴史》150
117. 田中健夫, 1961, 《島井宗室》(人物叢書), 吉川弘文館
118. 那波利貞, 1961, <月峯海上錄攷釋> 《朝鮮學報》21・22
119. 駒井義明, 1961, <日輪伝説の伝統について> 《神道史研究》9-4
120. 石原道博, 1962, <万曆朝鮮役後の日明交渉> 《茨城大學文理學部紀要》13
121. 岩澤愿彦, 1962, <秀吉の唐入りに關する文書> 《日本歴史》163
122. 佐々木潤之介, 1962, <軍役論の問題点(上)> 《歴史評論》146

123. 那波利貞, 1962, <慶長丁酉役の水軍俘虜鄭希得の月峯海上録>, 金正桂編<韓來文化の後榮>上(韓國資料研究所)
124. 中村榮孝, 1962a, <月峯海上録について> 《朝鮮學報》25
125. 中村榮孝, 1962b, <《月峯海上録》と《老松堂日本行録》> 《日本歴史》173
126. 中村榮孝, 1962c, <壬辰戰爭の義兵について> 《朝鮮學報》23
127. 阿部吉雄, 1963,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28. 岡本良知, 1963, 《豊臣秀吉》(中公新書), 中央公論社
129. 長正統, 1963, <景輦玄蘇について——外交僧の出自と法系——> 《朝鮮學報》29
130. 中村榮孝, 1963, <文祿・慶長役素描> 《歴史教育》11-10
131. 貫井正之, 1963, <《壬辰倭亂》の初期における朝鮮人民の動向について> 《朝鮮研究月報》23
132. 朝尾直弘, 1964, <豊臣政權の基盤> 《歴史學研究》292
133. 石原道博, 1964, 《文祿慶長の役》, 塙書房
134. 三品彰英, 1964, <明王贈豊太閤冊封文> 《日本美術工芸》307
135. 阿部吉雄, 1965,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36. 佐々木潤之介, 1965, <幕藩制國家の成立>, 北島正元編<体系日本史叢書2 政治史II> 山川出版社
137. 内藤雋輔, 1965, <秀吉の朝鮮役に従軍した一日本僧《慶念》の戰爭觀について> 《(ノートルダム清心女子大學英文學科・一般教養)紀要》1-1
138. 中村榮孝, 1965, <朝鮮役の投降倭將金忠善—その文集と伝記の成立—>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38
139. 貫井正之, 1965a, <<文祿・慶長の役>研究史における義兵の位置と義兵鄭仁弘軍について> 《桃山歴史・地理》5 [貫井正之1996收録]
140. 貫井正之, 1965b, <豊臣秀吉の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朝鮮人民の動向について—特に朝鮮の義兵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1 [貫井正之1996收録]
141. 石原道博, 1966, <壬辰・丁酉倭亂と戚繼光の新法> 《朝鮮學報》37・38
142. 高橋盛孝, 1966, <壬辰倭亂の伝説> 《朝鮮學報》37・38
143. 内藤雋輔, 1966, <壬辰・丁酉役における謂ゆる《降倭》について> 《朝鮮學報》37・38
144. 内藤雋輔, 1966, <《朝鮮日々記》追考并に正誤> 《朝鮮學報》41
145. 藤間生大, 1966, 《東アジア世界の形成》, 春秋社
146. 李進熙, 1966, <秀吉の朝鮮侵略について> 《歴史地理教育》125
147. 黒田省三, 1966,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研究》上> 《朝鮮學報》41
148. 田中健夫, 1966, <朝鮮の役の分析視角について> 《九州史學》33・34
149. 中村質, 1966, <朝鮮の役と九州> 《九州史學》33・34
150. 中村榮孝, 1966, 《日本と朝鮮》(日本歴史新書), 至文堂

62 韓日 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151. 三鬼清一郎, 1966, <朝鮮役における軍役体系について> 《史學雜誌》75-2
152. 森山恒雄, 1966, <九州における豊臣氏直轄領の一形態> 《東海史學》2
153. 長節子, 1967, <朝鮮役における明福建軍門の島津氏工作> 《朝鮮學報》42 [長節子2002
收録]
154. 金潤坤, 1967, <郭再祐の義兵活動> 《歷史學報》33
155. 内藤雋輔, 1967,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虜朝鮮人の遺聞について>(上), 《朝鮮學報》
44
156. 中村榮孝, 1967, <今西文庫本《亂中秘記》寫本について—18世紀朝鮮の首都防衛論—> 《
ビブリア》《天理図書館》35
157. 三鬼清一郎, 1968, <朝鮮役における水軍編成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二十周年記
念論集》
158. 内藤雋輔, 1968,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虜朝鮮人遺聞—宗教家の場合> 《朝鮮學報》
49
159. 中村榮孝, 1968, <明太祖家法に見える侵略戦争抑制の規定—《祖訓錄》と《皇明祖訓》
の對外關係條文—> 《朝鮮學報》48
160. 朝尾直弘, 1969, <近世封建制論をめぐって> 《日本の歴史》別卷、讀賣新聞社
161. 中村榮孝, 1969a, 《日鮮關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162. 中村榮孝, 1969b,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63. 朝尾直弘, 1970, <鎖國制の成立> 《講座日本史》4、東京大學出版會
164. 長節子, 1970, <錦溪日記>小紹介, 《朝鮮學報》56
165. 黒田省三, 1970, <中村榮孝《日鮮關係史の研究》中・下> 《朝鮮學報》57
166. 佐々木潤之介, 1970, <統一政權の歴史的前提> 《歴史評論》241
167. 中村榮孝, 1970, 解説: <今西文庫本《亂中秘記》寫本について> 《朝鮮學報》55
168. 大庭 脩, 1971, <豊臣秀吉を日本國王に封ずる詔命について—わが國に現存する明代の
誥勅—>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4号
169. 中村榮孝, 1971a, 《朝鮮—風土・民族・伝統—》, 吉川弘文館
170. 中村榮孝, 1971b, <豊臣秀吉の對外出兵について>—その戦域に關する序説, 《日本歴史》
272
171. 三鬼清一郎, 1971, <田麥年貢三分一徴收と荒田對策>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
學18
172. 渡辺悌之助, 1971, <朝鮮役における籠城考—吉州および蔚山—> 《軍事史學》6-4
173. 今井林太郎(解説), 1972, 《兵庫縣の歴史》8号巻頭グラビア(三原郡西淡町松帆江尻江善
寺石碑拓本), 兵庫縣
174. 中村榮孝, 1972, <万曆朝鮮の役と浙江將兵> 《東方學會創立25周年記念東方學論集》東
方學會

175. 松本豊壽, 1972, <城下の大基地の町 肥前名護屋> 《地理學評論》45-3
176. 三鬼清一郎, 1972, <豊臣政權の市場構造>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19
177. 森山恒雄, 1972, <九州における豊臣御藏入米(地)について—肥後の代官加藤清正を中心
に—> 《熊本史學》40
178. 李鉉淙, 1972, <備辺司創置年代考> 《朝鮮研究年報》15
179. 北島万次, 1973, <田尻鑑種の<高麗日記>> 《歴史評論》279
180. 崔書勉, 1973, <七年戦役の被虜—おたあ・ジュリアについて> 《韓》2-5
181. 佐々克明, 1973, <朝鮮の役と九鬼水軍—九鬼水軍興亡史(2)> 《歴史と人物》3-1
182. 中村榮孝, 1973, <朝鮮における關羽の祠廟について—壬辰・丁酉倭亂と<關王廟>の創始>
《天理大學學報》24-5
183. 中村榮孝, 1973,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冊封に關する誥命、勅諭と金印について> 《日本
歴史》300
184. 森山恒雄, 1973, <九州の豊臣藏入地の構造と機能(I)—各國別藏入地の檢出作業と旧論
の補足をかねて—> 《熊本大學教育學部紀要》22
185. 矢作勝美, 1973, <朝鮮活字の渡來と定着> 《日本の中の朝鮮文化》19
186. 内藤雋輔, 1974, <慶長丁酉の役, 被虜學人間の雅游について> 《朝鮮學報》71
187. 中村榮孝, 1974, <壬辰倭亂の發端と日本の<仮道入明>交渉> 《朝鮮學報》70
188. 藤木久志, 1974, <朝鮮出兵と民衆>, 佐々木潤之介編《日本民衆の歴史》3、三省堂
189. 松田毅一・川崎桃太, 1974, 《秀吉と文祿の役》(中公新書), 中央公論社
190. 三鬼清一郎, 1974, <朝鮮役における國際條件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21
191. 山口啓二, 1974, 《幕藩制成立史の研究》, 校倉書房
192. 北島万次, 1975, <秀吉の朝鮮侵略挫折と義兵運動展開の基盤> 《歴史評論》300
193. 李鉉淙, 1975, <壬辰倭亂と東南アジア人の來援> 《アジア公論》29
194. 紙屋敦之, 1975, <梅北一揆の歴史的意義> 《日本史研究》157
195. 北島万次, 1975, <秀吉の朝鮮侵略挫折と義兵運動展開の基盤> 《歴史評論》300
196. 中村榮孝, 1975, <蓬左文庫の<朝鮮征伐記>古寫本>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國史學
研究室編《名古屋大學日本史論集》下、吉川弘文館
197. 藤木久志, 1975, 《織田・豊臣政權》(日本の歴史15), 小學館
198. 三鬼清一郎, 1975a, <太閤檢地と朝鮮出兵> 《岩波講座 日本歴史》9、岩波書店
199. 三鬼清一郎, 1975b, <人掃令をめぐる>, 名古屋大學文學部國史學研究室編《名古屋大
學日本史論集》下、吉川弘文館
200. 李元植, 1976, <壬亂僧將松雲大師墨跡の發見に寄せて—加藤清正陣營への往返を中心
に—> 《韓》5-5、6
201. 内藤雋輔, 1976,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02. 中村新太郎, 1976, 《日本と朝鮮の二千年》, 東邦出版社
203. 中村榮孝, 1976, <秀吉の朝鮮出兵の意図はどこに求められるか>, 箭内健次編《海外交渉史の視点》2、日本書籍
204. 奈倉哲三, 1976, <秀吉の朝鮮侵略と《神國》> 《歴史評論》314
205. 三鬼清一郎, 1976, <文祿・慶長の役と瀬戸内の海賊> 《歴史手帖》4-5
206. 李燭錫, 1977, 《壬辰戰亂史》, 東洋図書出版
207. 岡野昌子, 1977, <秀吉の朝鮮侵略と中國> 《中山八郎教授頌壽記念 明清史論叢》
208. 北島万次, 1977a, <秀吉の朝鮮侵略と幕藩制國家の成立> 《歴史學研究》1977年度別冊
209. 北島万次, 1977b, <豊臣政權の軍役体系と島津氏>, 北島正元編《幕藩制國家成立過程の研究》、吉川弘文館
210. 北島万次, 1977c, <書評：内藤雋輔著《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歴史評論》327
211. 姜在彦, 1977, <姜沆と江戸儒學—《看羊錄》にみる藤原惺窩との交友> 《季刊三千里》9
212. 金泰俊, 1977, <壬辰の亂と朝鮮文化の東漸> 《アジア公論》6-11
213. 貫井正之, 1977a, <郭再祐一抵抗とその生涯—> 《朝鮮學報》83
214. 貫井正之, 1977b, <全羅道義兵について> 《朝鮮歴史論集》
215. 矢澤康祐, 1977a, <《壬辰倭亂》と朝鮮民衆のたたかい> 《人文學報》118
216. 矢澤康祐, 1977b, <《壬辰倭亂》と朝鮮> 《歴史學研究》1977年度別冊
217. 琴秉洞, 1978, 《耳塚—秀吉の鼻斬り・耳斬りをめぐって—》, 二月社
218. 北島万次, 1978, <豊臣政權の軍役体制と島津氏>, 北島正元編《幕藩制國家成立過程の研究》、吉川弘文館
219. 北村秀人, 1978, <書評：内藤雋輔著《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洋史研究》36-4
220. 琴秉洞, 1978, <壬辰倭亂の實相—ついで秀吉の妄想—> 《統一評論》159
221. 崔書勉, 1978, <75年ぶりに確認された咸鏡道壬辰義兵大捷碑> 《韓》7-3
222. 貫井正之, 1978, <義兵將・郭再祐—壬辰義兵の評価をめぐって—> 《季刊三千里》13
223. 吉留路樹, 1978, 《豊臣秀吉の爪痕》, 二月社
224. 貫井正之, 1979, <全羅道義兵について> 《旗田魏先生古稀記念 朝鮮歴史論集 上》(龍溪書舍)
225. 貫井正之, 1979, <壬辰・丁酉戰爭と《瑣尾錄》> 《季刊三千里》20
226. 貫井正之, 1979, <《壬辰倭亂》における義兵活動と民衆抵抗>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227. 朴鍾鳴譯註, 1979, 《懲毖錄》, 平凡社(東洋文庫)
228. 三鬼清一郎, 1979, <朝鮮役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三十周年記念論集》

229. 倭城址研究會(編), 1979, 《倭城一文祿慶長役における日本軍築城遺跡1—》, 倭城址研究會
230. 蘇在英, 1980, <壬辰・丙子兩亂を中心とした文學意識の変遷過程> 《朝鮮學報》94
231. 貫井正之, 1980, <文祿役における安國寺軍の全羅道侵入路について—池内博士の所論と関連して—> 《桃山歴史・地理》16・17
232. 倭城址研究會, 1980, <倭城址調査の記録—秀吉朝鮮侵略期の朝鮮での日本式築城について—> 《歴史評論》360
233. 北島万次, 1981a, <醍醐の花見にみる豊臣政權の本性> 《歴史評論》369
234. 北島万次, 1981b, <第一次朝鮮侵略における朝鮮の占領政策> 《歴史評論》373
235. 北島万次, 1981c, <豊臣政權論> 《講座日本近世史》1、有斐閣
236. 北山學, 1981, <文祿の役に征軍の鳥飼下組の兵衛について> 《淡路の文化》3-4
237. 琴秉洞, 1981, <朝鮮側から見た秀吉の侵略> 《歴史地理教育》317
238. 杉浦敏, 1981, <對馬島民と秀吉の朝鮮侵略> 《歴史地理教育》317
239. 三鬼清一郎, 1981a, <織田政權の權力構造> 《講座日本近世史》1、有斐閣
240. 三鬼清一郎, 1981b,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役の評価について> 《歴史評論》373
241. 山本博文, 1981, <文祿の役における講和勅使の舟の調達をめぐる小西行長と島津忠恒> 《海事史研究》36
242. 北島万次, 1982, 《朝鮮日々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そしえて
243. 柳田利夫, 1982, <文祿・慶長の役とキリシタン宣教師> 《史學》52-1
244. 山本博文, 1982, <書評：北島万次著《朝鮮日々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歴史評論》391
245. 高野信治, 1983, <佐野藩における近世家臣団の創出過程> 《九州史學》76
246. 森山恒雄, 1983, 《豊臣氏九州藏入地の研究》, 吉川弘文館
247. 山本博文, 1983, <豊臣政權期島津氏の藏入地と軍役体制> 《史學雜誌》92-6
248. 藤木久志, 1983, <書評：北島万次著《朝鮮日々記・高麗日記》, 《史學雜誌》92-4
249. 吉岡新一, 1983,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火器についての研究> 《朝鮮學報》108
250. 李元植, 1984,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た倭學譯官について> 《朝鮮學報》111
251. 李進熙, 1984, 《倭館・倭城を歩く》, 六興出版
252. 櫻井克巳, 1984, <織豊政權の朝鮮出兵における兵糧米調達政策とその實態> 《一橋研究》9-3
253. 西本誠司, 1984, <朝鮮出兵に關する一史料の年次について> 《鹿兒島中世史研究會報》42
254. 布引敏雄, 1984, <《陰徳記》の日朝會話集について—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軍の暴虐—> 《山口縣地方史研究》51

66 韓日 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255. 朴鐘鳴, 1984, 《看羊錄—朝鮮儒者の日本抑留記—》, 平凡社(東洋文庫)
256. 上原兼吉, 1985, <幕藩制國家の成立と東アジア世界>
257. 小和田哲男, 1985, 《豊臣秀吉》(中公新書), 中央公論社
258. 片野次雄, 1985, 「李舜臣の海—文祿・慶長の海戦秘話—」, 《月刊韓國文化》7-4
259. 佐々木潤之介, 1985, <東アジア世界と幕藩制> 《講座日本歴史5 近世1》東京大學出版會
260. 高木昭作, 1985, <《惣無事》令について> 《歴史學研究》547
261. 田中健夫, 1985, <文祿慶長の役と日朝貿易の關係> 《白山史學》21
262. 鄭樸生, 1985,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出版
263. 貫井正之, 1985, <豊臣秀吉と朝鮮> 《月刊韓國文化》7-9
264. 藤本久志, 1985, 《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 東京大學出版會
265. 松浦章, 1985, <明代海商と秀吉《入寇大明》の情報> 《末永先生米壽記念論集》坤の卷、同記念會
266. 李元淳, 1986, <壬辰・丁酉倭亂時の朝鮮人俘虜・奴隸問題> 《アジア公論》15-19
267. 北島万次, 1986, <豊臣政權の對外認識>, 永原慶二・稻垣泰彦・山口啓二編《中世・近世の國家と社會》東京大學出版會
268. グレゴリオ・セスペデス, 1986, <スペイン神父・セスペデスの倭軍從事記—小西行長と釜山からソウルまで> 《アジア公論》15-7
269. 三鬼清一郎, 1986a, <方廣寺大仏殿の造營に關する一考察>, 永原慶二・稻垣泰彦・山口啓二編《中世・近世の國家と社會》東京大學出版會
270. 三鬼清一郎, 1986b, <秀吉の國家構想と朝鮮出兵>, 大石愼三郎編《海外視點 日本の歴史》8、ぎょうせい
271. 荒野泰典, 1987, <日本型華夷秩序の形成> 《日本の社會史1 列島内外の交通と國家》岩波書店
272. 管寧, 1987, <秀吉の朝鮮侵略と許儀後> 《日本史研究》298
273. 北島万次, 1987, <豊臣政權の第二次朝鮮侵略と大名領國の対応>, 田中健夫編《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吉川弘文館
274. 豊見山和行, 1987, <琉球王國形成期の身分制について—冊封關係との關連を中心に—> 《年報中世史研究》12 [豊見山2004收録]
275. 中西豪, 1987, <朝鮮側史料に見る倭城—その觀察と理解の實相> 《朝鮮學報》125
276. 三鬼清一郎, 1987, <關白外交体制の特質をめぐって>, 田中健夫編《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吉川弘文館
277. 朝尾直弘, 1988, 《天下統一》(体系日本の歴史8), 小學館
278. 宇田川武久, 1988, <壬辰・丁酉の倭亂と李朝の兵器> 《國立歷史民俗博物館報告》17 [宇田川武久1993收録]

279. 曾根勇二, 1988, <第1次朝鮮侵略における城米奉行について—その設置時期> 《紀要(文學)》〈東洋大・院〉24
280. 田中健夫, 1988, <對馬以配庵の研究—近世對朝鮮外交機關の一考察—> 《東洋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24
281. 中川和明, 1988, <豊臣政權の城普請・城作事について> 《弘前大學・國史研究》85
282. 張玉祥, 1989, 《織豊政權と東アジア》, 六興出版
283. 北島万次, 1989, <豊臣政權の朝鮮侵略と五山僧>, 深谷克巳・加藤榮一・北島万次編《幕藩制國家と異域・異國》校倉書房
284. 北島万次, 1989, 「中世の日朝關係」, 《日朝關係史を考える》青木書店
285. 國重顯子, 1989, <豊臣政權の情報伝達について—文祿2年初頭の前線後退をめぐる—> 《九州史學》96
286. 勝俣鎮夫, 1990, <人掃令について> 《東京大學教養學部・歴史と文化》17
287. 北島万次, 1990,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288. 池明觀, 1990, <壬辰倭亂と近代朝鮮のナショナリズム> 《社會科學討究》24-2
289. 東京美術編, 1990, <朝鮮人道見取繪図1—鳥居本・彦根2—八幡町・仁保十王町>, 東京美術
290. 中野等, 1990a, <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海上輸送の展開について>, 九州大學國史學研究室編《近世近代史論集》吉川弘文館
291. 中野均, 1990b, <朝鮮侵略戰爭における豊臣政權の兵糧補給について> 《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35
292. 増田勝機, 1990, <内之浦來航の唐船(明船)について> 《鹿兒島女子短大紀要》45
293. 片倉穰, 1991, <東南アジア渡航朝鮮人に關する覺書>, 鶴園裕1991所收
294. 辛基秀・村山恒夫, 1991, 《儒者姜沆と日本—儒教を日本に伝えた朝鮮人》, 明石書店
295. 鶴園裕, 1991, 《日本近世初期における渡來朝鮮人の研究》, 金澤大學
296. 増田勝機, 1991, <いわゆる薩摩と明福建軍門との合力計畫> 《鹿兒島女子短大紀要》47
297. 紙屋敦之, 1992, <梅北一揆の伝承と性格> 《史觀》126
298. 佐島顯子, 1992, <秀吉の《唐入り》構想の挫折と小西行長の講和交渉> 《福岡女學院大學・紀要》2
299. 曾根勇二, 1992, <豊臣藏入地支配の形成について> 《東洋大學文學部・紀要》史學45
300. 北島万次, 1992a, <壬辰倭亂期の朝鮮と明>,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Ⅱ 外交と戰爭》東京大學出版會
301. 北島万次, 1992b, <壬辰倭亂の義兵顯彰碑と日本帝國主義> 《歴史學研究》639
302. 中野等, 1992, <太閤・關白並立期の豊臣政權について> 《歴史評論》507 [中野等1999收録]
303. 中村實, 1992, <壬辰丁酉倭亂の被虜人の軌跡—長崎在住者の場合—> 《韓國史論》22

304. 高橋公明, 1992, <異民族の人身賣買—ヒトの流通—>,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海上の道》東京大學出版會
305. 貫井正之, 1992, 《秀吉と戦った朝鮮武將》, 六興出版
306. 三鬼清一郎, 1992, <陣立書の成立をめぐる>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38
307. 山室恭子, 1992, 《黃金太閤》(中公新書), 中央公論社
308. 宇田川武久, 1993,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15~17世紀における兵器の受容と伝播—》, 吉川弘文館
309. 金文子, 1993, <豊臣政權期の日・明和議交渉と朝鮮> 《お茶の水史學》37
310. 佐島顯子, 1993, <虚實錯綜した講和交渉> 《歴史群像シリーズ35 文祿・慶長の役》, 學研
311. 清水紘一, 1993, <博多基地化構想と禁教令—天正禁教令との關連を中心として—>, 藤野保先生還暦記念會編《近世日本の政治と外交》, 雄山閣出版 [清水紘一2001收録]
312. 李元淳, 1994, 《韓國から見た日本の歴史教育》, 青木書店
313. 姜在彦, 1994, 《韓國と日本の交流史 近世篇》, 明石書店
314. 佐島顯子, 1994,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る> 《年報朝鮮學》4
315. 崔官, 1994, 《文祿・慶長の役》, 講談社
316. 中野等, 1994, <文祿・慶長期の豊臣政權> 《歴史評論》534 [中野等1999收録]
317. 李啓煌, 1995a, <慶長の役の最末期における《丁應泰誣奏事件》と日・明將らの講和交渉> 《日本史研究》389
318. 李啓煌, 1995b, <和好交渉における朝・日の立場・態度>, 朝尾直弘教授退官記念會編《日本國家の史的特質》思文閣出版
319. 李進熙・姜在彦, 1995, 《日朝交流史》, 有斐閣
320. 池亨, 1995, <東アジア社會の変動と統一政權の確立> 《歴史評論》539
321. 勝俣鎮夫, 1996, 《戰國時代論》, 岩波書店
322. 北島万次, 1995,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323. 田代和生・米谷均, 1995, <宗家旧藏《図書》と木印> 《朝鮮學報》156
324. 藤木久志, 1995a, 《戰國史をみる目》, 校倉書房
325. 藤木久志, 1995b, 《雜兵たちの戰場》, 朝日新聞社
326. 井原今朝男, 1996, <韓國の倭城を訪ねて> 《歴史地理教育》550 [井原今朝男1999a收録]
327. 仲尾宏, 1996, <壬辰・丁酉倭亂の朝鮮人被虜とその定住・歸國> 《(京都芸術短期大學紀要)瓜生》19号 [仲尾2000收録]
328. 中野等, 1996, <《唐入り》と《人掃》令>, 曾根勇二・木村直也編《新しい近世史 2 國家と對外關係》新人物往來社 [中野等1999收録]
329. 貫井正之, 1996, 《豊臣政權の海外侵略と朝鮮義兵研究》, 青木書店
330. 三木聰, 1996, <福建巡撫許孚遠の謀略—豊臣秀吉の《征明》をめぐる—> 《(高知大學

人文學部人文學科)人文科學研究》4

331. 米谷均, 1996, <書評: 北島万次著《豊臣秀吉の朝鮮侵略》> 《民衆史研究》52
332. 跡部信, 1997, <關白秀次の朝鮮出兵—大阪城天守閣所藏史料の紹介を通して—> 《倭城の研究》1
333. 李啓煌, 1997,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334. 井原今朝男, 1997a, <上杉景勝の朝鮮出兵と熊川倭城> 《長野縣立歴史館・研究紀要》3
335. 井原今朝男, 1997b, <戸隠神社再興と上杉朝鮮出兵> 《信濃毎日新聞》2月11日文化欄 [井原今朝男1999a收録]
336. 角田誠, 1997,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港湾防禦の一形態—巨濟島長木浦の場合について—> 《倭城の研究》1
337. 北垣聰一郎, 1997, <平面プランからみた機張倭城とその石積技術> 《倭城の研究》1
338. 金光哲, 1997, <耳塚と阿弥陀ヶ峰> 《鷹陵史學》23
339. 黒田慶一, 1997a, <倭城と巨濟島> 《倭城の研究》1
340. 黒田慶一, 1997b, <倭城の滴水瓦について> 《倭城の研究》1
341. 黒田慶一・山崎敏昭, 1997, <巨濟島 4倭城の瓦> 《倭城の研究》1
342. 佐島顯子, 1997, 《日明講和交渉における朝鮮撤退問題 —冊封正使の脱出をめぐる—》, 《鎖國と國際關係》吉川弘文館
343. 高田徹, 1997a, <巨濟島 4倭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1
344. 高田徹, 1997b, <巨濟島 4倭城の縄張りについて> 《倭城の研究》1
345. 多田暢久, 1997, <旧永邑城内の日本式石垣> 《倭城の研究》1
346. 田中克行, 1997, <龜井琉球守再考> 《古文書研究》46
347. 中野等, 1997, 「肥前波多氏の領國と大陸進攻基地名護屋」, 《鎖國と國際關係》吉川弘文館
348. 羅東旭, 1997, <巨濟島の環境概観> 《倭城の研究》1
349. 福島克彦, 1997, <戦前の倭城研究について> 《倭城の研究》1
350. 山崎敏昭, 1997a, <軍威台の城郭遺構> 《倭城の研究》1
351. 山崎敏昭, 1997b, <巨濟島 4倭城の瓦について> 《倭城の研究》1
352. 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偽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697
353. 跡部信, 1998, <《宇都宮高麗歸陣軍物語》(翻刻)> 《倭城の研究》2
354. 笠谷和比古, 1998, <蔚山籠城戦と關ヶ原合戦> 《倭城の研究》2
355. 河上繁樹, 1998, <豊臣秀吉の日本國王冊封に關する冠服について—妙法院伝來の明代官服> 《(京都國立博物館)學叢》20号
356. 岸本美緒・宮島博史, 1998, 《明清と李朝の時代》(世界の歴史12), 中央公論社
357. 木島孝之, 1998, <倭城と國內城郭の縄張り構造からみた近世初頭大名權力の様相> 《倭城の研究》2

358. 金洪圭編, 1998, 《秀吉・耳塚・四百年》, 雄山閣出版
359. 金屬文化研究會ほか, 1998, <順天倭城出土羽釜の金屬學的調査報告> 《倭城の研究》2
360. 黒田慶一, 1998a, <順天城と《征倭紀功図巻》> 《倭城の研究》2
361. 黒田慶一, 1998b, <順天城の表採遺物> 《倭城の研究》2
362. 佐伯弘次, 1998, <椎葉地方と朝鮮通信使> 《文明のクロスワードMuseum Kyushu》60
363. 仲尾宏, 1998, <鼻塚から耳塚へ—秀吉の朝鮮侵略と近代の秀吉顯彰—> 《民族文化教育研究》1号 [仲尾2000収録]
364. 高田徹, 1998a, <順天城の縄張りについて> 《倭城の研究》2
365. 高田徹, 1998b, <倭城の天守について> 《倭城の研究》2
366. 高田徹, 1998c, <危機に立つ倭城②—梁山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2
367. 高田徹・福島克彦, 1998, <順天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2
368. 服部英雄, 1998, <倭城の保存をめぐる近況> 《日本歴史》606号
369. 福岡市博物館(編), 1998, 《黒田家文書 第1巻》, 福岡市博物館
370. 堀口健貳, 1998a, <順天城の石垣> 《倭城の研究》2
371. 堀口健貳, 1998b, <順天城石垣の編年的位置付け> 《倭城の研究》2
372. 松本哲, 1998, <狹山池堤出土の船材> 《倭城の研究》2
373. 村井早苗, 1998, <朝鮮生まれのキリシタン市兵衛の生涯>, 今谷明・高埜利彦編《中近世の宗教と國家》岩田書院
374. 山崎敏昭, 1998, <危機に立つ倭城①—加徳城と安骨浦の縄張り> 《倭城の研究》2
375. 米谷均, 1998, <中世後期、日本人朝鮮渡海僧の記録類について> 《青丘學術論集》12
376. 伊藤幸司, 1999, <中世後期の臨濟宗幻住派と對外交流> 《史學雜誌》108-4 [伊藤2002収録]
377. 井原今朝男, 1999a, 《中世のいくさ・祭り・外國との交わり》, 校倉書房
378. 井原今朝男, 1999b, <戰國織豊期の乙名衆と海運・鉦山・地方經營>, [井原今朝男1999a収録新稿]
379. 太田秀春, 1999, <文祿の役(壬辰倭亂)における漢城の日本軍陣所について—宇喜多秀家本陣における天守造營を中心に—> 《倭城の研究》3
380. 北島万次, 1999, <李朝の焼きものと薩摩の焼きもの> 《歴史評論》592
381. 木部和昭, 1999, <萩藩における朝鮮人捕虜と武士社會> 《歴史評論》593
382. 金光哲, 1999, 《中近世における朝鮮觀の創出》, 校倉書房
383. 金泰虎, 1999, <16世紀末の東アジアにおける國際關係とイエズス會> 《大阪商業大學比較地域研究所・地域と社會》2
384. 白峰旬, 1999,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秀吉朱印狀(城郭關係分)について> 《倭城の研究》3
385. 高田徹ほか, 1999a, <金海竹島倭城の遺構と遺物> 《倭城の研究》3

386. 高田徹ほか, 1999b, <西生浦倭城の遺構と遺物> 《倭城の研究》3
387. 羅東旭, 1999, <釜山市域新発見の倭城遺構> 《倭城の研究》3
388. 中條健太, 1999, <秀吉の朝鮮侵略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 《ヒストリア》165
389. 中野等, 1999, 《豊臣政權の對外侵略と太閤檢地》, 校倉書房
390. 橋本雄, 1999, <史料紹介: 丹波國氷上郡佐治莊高源寺所藏文書> 《東京大學日本史學研究室紀要》3
391. 福島克彦, 1999, <《都市》を指向した倭城> 《倭城の研究》3
392. 藤本正行, 1999, <倭城の武具と戦い> 《倭城の研究》3
393. 堀苑孝志, 1999, <肥前名護屋城跡素描> 《倭城の研究》3
394. 宮武正登, 1999, <肥前名護屋城に見る豊臣秀吉の築城觀> 《城郭研究室年報》8
395. 村井章介, 1999, <壬辰倭亂の歴史的前提> 《歴史評論》592
396. 村上恒夫, 1999, 《姜沆 儒教を伝えた虜囚の足跡》, 明石書店
397. 米谷均, 1999a, <《朝鮮通信使》と被虜人刷還活動について> 《對馬宗家文書 第Ⅰ期 朝鮮通信使記録 別冊 中》ゆまに書房
398. 米谷均, 1999b,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戦争捕虜の送還> 《歴史評論》592
399. 太田秀春, 2000a, <ソウル大學校所藏の倭城図について—《朝鮮城址實測図》の意義と同図に見る倭城—> 《倭城の研究》4
400. 太田秀春, 2000b, <韓國における倭城研究の現状と課題> 《倭城の研究》4
401. 小澤晃子, 2000, <安骨浦倭城表採陶磁器> 《倭城の研究》4
402. 笠谷和比古・黒田慶一, 2000, 《秀吉の野望と誤算—文祿・慶長の役と關ヶ原合戦—》, 文英堂
403. 角田誠, 2000, <南海倭城についてのフラクタル解析の試み> 《倭城の研究》4
404. 姜在彦, 2000, <倭城と《壬辰倭亂》> 《倭城の研究》4
405. 黒田慶一, 2000, <南海倭城と《征倭紀功図卷》> 《倭城の研究》4
406. 白峰旬, 2000,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豊臣政權の諸城普請について>, 三鬼清一郎編《織豊期の政治構造》吉川弘文館
407. 千田嘉博, 2000, 《織豊系城郭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408. 高瀬哲郎, 2000, <倭城跡を訪ねて(2), 《研究紀要》(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6
409. 高田徹, 2000a, <南海倭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4
410. 高田徹, 2000b, <東三洞倭城について> 《倭城の研究》4
411. 高田徹・堀口健武, 2000, <釜山倭城の縄張りについて> 《倭城の研究》4
412. 高橋修, 2000, <壬辰倭亂に關する繪畫—和歌山縣立博物館藏《壬辰倭亂図屏風》を中心に—> 《倭城の研究》4
413. 朝鮮日々記研究會編, 2000, 《朝鮮日々記を読む—眞宗僧が見た秀吉の朝鮮侵略—》, 法藏館

72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414. 羅東旭, 2000, <南海倭城の滴水瓦> 《倭城の研究》4
415. 仲尾宏, 2000a, 《朝鮮通信使と壬辰倭亂》, 明石書店
416. 仲尾宏, 2000b, <洛中洛外図にみる朝鮮使節と耳塚> 《(京都芸術短期大學紀要)瓜生》23号 [仲尾2000收錄]
417. 西尾孝昌, 2000, <壹岐・對馬の城—勝本城と清水山城—> 《倭城の研究》4
418. 橋本雄, 2000, <史料紹介: 丹波國水上郡佐治莊高源寺所藏文書(續)> 《東京大學日本史學研究室紀要》4
419. 堀口健貳, 2000, <南海倭城の石垣> 《倭城の研究》4
420. 松岡利郎, 2000, <倭城天守台實測概報> 《倭城の研究》4
421. 丸山雍成, 2000, <朝鮮降倭武將《沙也可》とはだれか>, 廣渡正利編著《大藏姓原田氏編年史料》文獻出版
422. 宮武正登, 2000, <文祿・慶長の役(壬辰・丁酉倭亂)における大名陳跡の諸形態(3)> 《研究紀要》(佐賀縣立名誤屋城博物館)6
423. 村井章介, 2000, <島津史料から見た泗川の戦い> 《歴史學研究》736
424. 山崎敏昭, 2000, <南海倭城の瓦類> 《倭城の研究》4
425. 北島万次(譯注), 2001, 李舜臣著《亂中日記》上・中・下(東洋文庫), 平凡社
426. 清水紘一, 2001, 《織豊政權とキリシタン—日歐交渉の起源と展開—》, 岩田書院
427. 曾根勇二, 2001, <朝鮮出兵をめぐる戦争体制と國內支配の實態>, 歴史科學協議會編《歴史が動く時—人間とその時代—》青木書店
428. 津野倫明, 2001, <慶長の役における軍目付の實名について> 《ぐんしょ》54
429. 長谷川成一, 2001, <奥羽大名の肥前名護屋在陣に關する新史料について> 《市史ひろき》10
430. 藤田達生, 2001, <海賊禁止令の成立過程> 《日本近世國家成立史の研究》校倉書房
431. 李元植, 2002, <講和使僧松雲大師と日朝善隣外交>, [仲尾宏・曹永祿2002收錄]
432. 伊藤幸司, 2002, 《中世日本の外交と禪宗》, 吉川弘文館
433. 稻葉繼陽, 2002, <戰國から泰平の世へ>, 坂田聰・榎原雅治・稻葉繼陽《村の戦争と平和》(日本の中世12)吉川弘文館
434. 太田秀春, 2002, <日本・韓國における倭城關係文獻目錄(補遺)> 《倭城の研究》5
435. 大曲敦, 2002, <父 大曲美太郎と釜山考古會> 《倭城の研究》5
436. 大曲美太郎, 2002, <釜山の古蹟—釜山港に面する地方—> 《倭城の研究》5
437. 奥村信一, 2002, <韓國蔚山廣域市蔚州郡西生浦倭城整備計畫(案)> 《倭城の研究》5
438. 長節子, 2002, 《中世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439. 角田誠, 2002, <明洞倭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5
440. 北島万次, 2002a, 《壬辰倭亂と秀吉・島津・李舜臣》, 校倉書房
441. 北島万次, 2002b, 《秀吉の朝鮮侵略》(日本史リブレット34), 山川出版社

442. 北島万次, 2002c, <壬辰丁酉倭亂と松雲大師>,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43. 金榮作, 2002, <松雲大師の加藤清正との外交談判>,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44. 黒田慶一, 2002a, <西生浦倭城の特集にあたって> 《倭城の研究》5
445. 黒田慶一, 2002b, <明洞倭城の陶磁器・瓦類> 《倭城の研究》5
446. 黒田慶一・中村仁美, 2002, <熊川倭城の陶磁器・瓦類> 《倭城の研究》5
447. 曹國慶, 2002, <明朝の將校劉綎と朝鮮の義僧松雲大師による協同抗倭戦争>,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48. 高田徹, 2002, <熊川倭城の縄張り> 《倭城の研究》5
449. 鄭柄朝, 2002, <松雲大師惟政の思想と仏教史的位置>,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50. 陳尚勝, 2002, <壬辰倭亂時の明王朝と朝鮮の對日外交>,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51. 仲尾宏, 2002, <徳川家康と朝鮮・試論>,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52. 仲尾宏・曹永祿(編), 2002,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 明石書店
453. 中砂明德, 2002, <江南—中國文雅の源流—>(講談社選書メチエ), 講談社
454. 西川禎亮, 2002, <西生浦倭城の築造方法> 《倭城の研究》5
455. 西川禎亮ほか, 2002, <西生浦倭城石垣調査報告(2001年度)> 《倭城の研究》5
456. 貫井正之, 2002a, <壬辰丁酉倭亂および戦後の日朝交渉における惟政(松雲大師)の活動に關する考察> 《朝鮮學報》178
457. 貫井正之, 2002b, <義僧兵將・外交僧としての松雲大師の活動>,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58. 河宇鳳, 2002, <國交再開期における松雲大師の活動とその意義>,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59. 原田二郎, 2002a, <《釜山城》> 《倭城の研究》5
460. 原田二郎, 2002b, <《文祿役釜山及東萊戰史》> 《倭城の研究》5
461. 堀口健貳, 2002a, <熊川倭城の石垣> 《倭城の研究》5
462. 堀口健貳, 2002b, <明洞倭城の石垣> 《倭城の研究》5
463. 松岡利郎, 2002, <西生浦倭城の建築設計に關する試み> 《倭城の研究》5
464. 関德基, 2002, <壬辰倭亂前後の東北アジア國際秩序の變化>,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65. 山崎敏昭, 2002a, <西生浦倭城の瓦類> 《倭城の研究》5
466. 山崎敏昭, 2002b, <《子馬倭城》について> 《倭城の研究》5
467. 吉井秀夫, 2002, <釜山考古會とその活動について> 《倭城の研究》5
468. 米谷均, 2002a, <松雲大師の來日と朝鮮被虜人の送還について>, [仲尾宏・曹永祿2002収録]
469. 米谷均, 2002b, <豊臣政權期における海賊の引き渡しと日朝關係> 《日本歴史》650
470. 脇田修, 2002, <《倭城の研究》によせて> 《倭城の研究》5
471. 跡部信, 2003a, <秀吉の朝鮮渡海と國制> 《(大阪天守閣)紀要》31

74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472. 跡部信, 2003b, <書評: 池享編《天下統一と朝鮮侵略》> 《織豊期研究》5
473. 稻葉繼陽, 2003, <兵農分離と侵略動員>, [池2003收録]
474. 岡野友彦, 2003, 《源氏と日本國王》(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475. 池享(編), 2003, 《天下統一と朝鮮侵略》(日本の時代史13), 吉川弘文館
476. 池享, 2003, 天下統一と朝鮮侵略, [池2003收録]
477. 岸田裕之, 2003, <《八箇國御時代分限帳》にみる毛利氏の朝鮮への動員体制>, 岸田裕之編《中國地域と對外關係》山川出版社
478. 佐藤和夫, 2003, <朝鮮出兵と拉致問題—一朝交渉史の斷面—> 《政治經濟史學》447
479. 白峰旬, 2003, 《豊臣の城・徳川の城》, 校倉書房
480. 中野等, 2003a, <<唐入り>と兵站補給体制>, [池2003收録]
481. 中野等, 2003b, <文祿期發給秀吉朱印狀の年紀再考> 《日本歴史》665
482. 貫井正之, 2003, <南冥學派の壬辰義兵活動> 《歴史學研究》778
483. 久芳崇, 2003, <朝鮮の役における日本兵捕虜> 《東方學》105
484. 堀新, 2003, <信長・秀吉の國家構想と天皇>, [池2003收録]
485. 山内民博, 2003, <倭亂記録と顯彰・祭祀—壬辰丁酉倭亂と朝鮮鄉村社會—> 《新潟史學》50
486. 米谷均, 2003, <後期倭寇から朝鮮侵略へ>, [池2003收録]
487. 李元植, 2003, <<韓氏兩世墨妙>の發見に寄せて—壬辰倭亂艾主事所管文書を中心に—> 《朝鮮學報》188
488. ロビンソン、ケネス, 2003, <朝鮮後期の刊本地図帳に見える日本図> 《ICUアジア文化研究所》アジア文化研究》別冊12
489. 川越泰博, 2004, <史料紹介: 《全浙兵制考》の撰者について>, [村井2004a收録]
490. 北島万次, 2004a, <巨濟島の倭城址についての覺書>, [村井2004b收録]
491. 北島万次, 2004b, <全羅左水營の職人集団について—李舜臣の水軍を支えた人々—>, [村井2004b收録]
492. 豊見山和行, 2004, 《琉球王國の外交と王權》, 吉川弘文館
493. 藤井讓治, 2004, <16・7世紀の生産・技術革命>,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日本史講座5 近世の形成》東京大學出版會
494. 宮紀子, 2004a, <《混一疆理歷代國都之図》への道>, NHK<文明の道>プロジェクト(編)《モンゴル帝國》(NHKスペシャル文明の道5)NHK出版
495. 宮紀子, 2004b, <《混一疆理歷代國都之図》への道—14世紀四明地方の《知》の行方—>, 藤井讓治・杉山正明・金田章裕編《繪図・地図からみた世界像》(京都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21世紀COEプログラム<グローバル化時代の多元的人文學の據点形成><15・16・17世紀成立の繪図・地図と世界觀>中間報告書)京都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496. 村井章介(編), 2004a, 《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 —海域と

港市の形成、民族・地域間の相互認識を中心に―(上巻), 平成12~17年度日本學術振興會科學研究費報告書

497. 村井章介(編), 2004b, 《8-1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 ―海域と港市の形成、民族・地域間の相互認識を中心に―(下巻), 平成12~17年度日本學術振興會科學研究費報告書
498. 村井章介, 2004c, <《東アジア》と近世日本>, 歴史學研究會・日本史研究會編《日本史講座5 近世の形成》東京大學出版會
499. 米谷均, 2004a, <《全浙兵制考》<近報倭警>にみる日本情報>, [村井2004a收録]
500. 米谷均, 2004b, <譯注《全浙兵制考》<近報倭警>>, [村井2004a收録]
501. 米谷均, 2004c, <譯注《敬和堂集》<請計處倭酋疏>>, [村井2004a收録]
502. 米谷均, 2004d, <《仙巢稿別本》所收文書一覽表>, [村井2004a收録]